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1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0호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가을 문턱 사찰서 독서삼매경

먼산의 단풍으로 가을이 왔음을 알지만 가까운 사찰에 와 있는 가을은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용문산의 푸르름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용문사의 한 누각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삼매경에 빠진 불자의 모습이 쪽빛 물감을 풀어놓은 단풍만큼 아름답다. 양평 용문사=노덕현 기자

고속도로서 名刹 표지 사라진다

집중취재 **도로공사, 2003년 이후 사찰 표지판 철거 예고**

10년 넘게 지침 무시하다 최근 민원들로 작업 나서

스키장 되는데 사찰 안 돼 문화재 몰이해라는 비판도

관리지침 개정에 힘 써야

"합천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해인사입니다."
"속리산은요?"
"…."
"법주사 아닙니까. 천 년 이상 있어왔고 국민 속에 일체화됐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어느 사찰은 표시하고, 어느 것은 안 한다는데 일괄적으로 법을 정리하든지 더 편하게 안내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직 무대행에게 질의한 내용 일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한국불교 사찰과 4대강 보(洑) 등 지역명소를 철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제제기 한 것이다.

지침 어긋나… 불교계 최대 피해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한국불교 명찰(名刹)들의 이름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2003년 전후로 내용에 차이가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 사적지 · 경승지' 등을 고속국도 관광지표지에 명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5월 31일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는 제외됐다. 또한 2006년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도 표시할 수 없게 변경됐다. 그럼에도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고속도로 안내판에 사찰과 지역명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사찰명만 200개에 달한다. 결국 이 작업이 진행되면 불교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인 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는다. 또한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 · 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고속도로 안내판에 표시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지침 준수를 위해 작업에 착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급증한 민원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타 종교계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원에서 종교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된다. 그저 관련 기준에 어긋나는데 무분별하게 표지판이 설치된다는 내용이 많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안내표지에 대한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은 존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지만 존치 대상은 수덕사와 월정사 등 몇 군데뿐이다. 관리지침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지 않으면 도로공사는 지침에 맞춰 업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속한 지침 개정 요구돼

이에 대해 앞서 주호영 의원 지적처럼 고속도로 안내판에 이름을 올린 사찰들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고, 오래 전부터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관리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3일 '문화재사찰 안내 고속도로 표지판 철거방침 철회 및 관련 지침 개정 요청' 공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규정 개정은 제쳐놓고 규정에 없다는 사유로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문 스님은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것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관리지침에 개인소유 상업시설인 스키장, 온천, 놀이공원은 허용하면서도 소중한 문화재를 안내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공문 요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협조를 얻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측은 '검토단계'라고만 설명할 뿐 관리지침 개정의 가능성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비롯해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 알아보고 있다. 도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들에 대해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관리지침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지만 알아보니 표지판이 광고판으로 사용되면서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한 것 같다. 게다가 고속도로와 해당 시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광고판 활용 사례나 고속도로와 표지판에 명기된 시설 간의 거리 및 방향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교도 소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사찰명을 쓰는 것이 다종교사회에서 쉽지 않다면 '○○사 국보○호 ○○보살상' 등과 같이 문화재를 알리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사찰이 아닌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의 산사' 모든 것을 담다

등재추진위 학술총서 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전통산사에 대한 기초 연구 성과를 망라한 학술총서가 발간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상 7개 산사의 다양한 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결과물인 〈학술총서〉 2종(무형유산, 도면 ·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제1권인 〈무형유산〉은 등재 대상 산사의 의례와 축제 등 무형유산을 담고 있다. 각 산사의 무형유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기술했다. 또한 대표적 의례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첨부했다. 이를 통해 산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의례와 축제로 '살아있는 유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무형유산 · 도면사진집 2종
산사 등재위한 연구 자료

제2권인 〈도면 · 사진집〉은 등재대상 산사의 가람배치도와 가람 배치 특징, 주요 건축물의 사진과 도면을 수록했다. 각 산사의 주요 건축물의 배치와 구조, 현재까지의 보존상태 등을 담고 있다. 등재추진위는 '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보존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학술총서〉는 총 7종을 발간할 예정이며, 기록유산 · 자연환경(식생) · 유형유산 등의 발간이 진행 중이다.

등재추진위는 "〈학술총서〉는 등재대상 7개 전통산사에 대한 기초연구 사업으로 축적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지난 1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7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8권 출간

출간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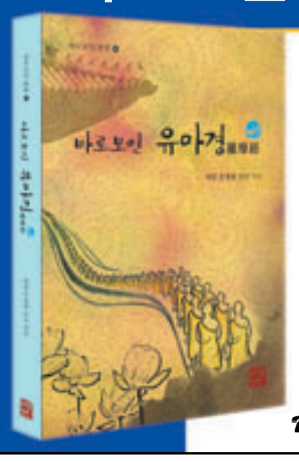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⑭ 혼밥과 혼차(茶)

홀로 적적히 웃다

법정 스님은 나보다 먼저 운전을 배우셨다. 산중에서 장 보러 가시거나 먼 바람을 쐬려면 운전하는 것이 편하셨기 때문이었다.

어느 가을날인가는 나를 송광사에서 광주버스터미널까지 스님의 소형 승용차로 태워주셨다. 클래식 음악카페인 '베토벤'에 학생들 학비를 전해주러 가시는 길인 듯도 싶었다. 학비를 '베토벤' 주인에게 맡겨 놓으면 학생들이 찾아갔다. 학생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스님의 배려였다. 요즘은 장학금이나 희사금을 내놓고 촌극을 벌이는 일이 많다. 돈의 액수를 아라비아숫자로 크게 쓴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들이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스님들인 경우 더 민망하다. 신도들에게는 상(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가사를 입은 분들이 상을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날 스님께서는 광주버스터미널을 가는 동안에 CD를 한 장 뽑으시더니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를 들려주셨다. 혼자 듣기에 좋은 피아노 연주곡이었다. 승용차는 광주 부근의 어느



일러스트 · 정윤경

주유소에서 멈추었다. 스님께서는 아예 '디셈버' CD를 나에게 선물하시면서 암자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스님 특유의 탁월한 비유였다. 수행자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나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승용차를 움직이고자 기름을 넣듯 수행자도 수행하고자 밥을 먹지 않은가. 혀를 위한 식탐은 수행자의 식사법이 아닐 터. 혼자 밥 먹는 것을 은어로 '혼밥'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보면 '혼밥'의 원조는 암자에 독거하는 스님의 무덤덤한 식사가 아닐까. 차도 마찬가지다. 수행자들은 차도 혼자 마시곤 한다. 그럴 때의 차는 '혼차(茶)'이리라. 법정 스님은 혼자 마시는 차의 '적적한 맛'이 최고의 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스님은 가끔 다산 정약용의 독소(獨笑) 즉 '홀로 웃다'라는 시를 애송하셨다.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자식 많은 집은 배고픔이 있으며/ 높은 벼슬아치는 반드시 어리석고/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펼 길 없다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지극한 도는 쇠퇴하기 마련이며/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푼수이다
보름달 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댄다/ 세상일이란 모두 이런 거지/ 나 홀로 웃는 까닭 아는 이 없을걸.

젊은이들의 은어지만 이왕에 혼밥과 혼차란 말이 있으니 이 시의 제목을 '혼소(笑)'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싶다.

조계종 연간 예산 800억원대 첫 진입

총본산 성역화 · 승려복지 등 특별회계 증가폭 커
일반회계 전년대비 4.6%증가… 종무원 임금 동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총 예산이 827억82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사상 첫 800억원대에 진입했다. 총본산성역화와 승려복지 등 특별회계가 늘어난 것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불기2562(2018)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69억5800만원 △특별회계 558억2450만원이다.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4.6%, 특별회계는 114억5253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안서 눈에 띄는 것은 중앙분담금이다. 올해 예산이 56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2%가 늘었다. 이는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구본사와 말사에 대한 변화된 등급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등급으로 적용하면 이보다 증가폭은 늘어나지만 교구본사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봉정암이 특별분담금 사찰서 해제되면서 특별분담금은 5억 원 감소했다. 문화재관람료는 1억 원 줄어든 51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간 문화재관람료가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직영분담금은 직영사찰 결산액의 오름세 따라 5억3000만원 증액한 91억6700만원으로 정해졌다.

개정된 분담금 납부 적용
중앙분담금 29.2% 늘어
목적사업 위한 계획 수립
새 집행부 출범 대비해

김용구 기획차장은 "중앙분담금은 변화된 등급표로 인해 2~300% 이상 증가된 사찰들이 부담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구본사와 꾸준히 논의했다"며 "결산액은 높지만 선방을 운영하거나 대중 복지에 힘쓰는 사찰들의 사정을 감안하는 등 객관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안은 제35대 집행부 출범에 대비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종무계획에 맞춰 수립했다. 종정기관은 총무원장선거 종료와 원로회의 회의 개최 감소에 따라 9742만원 감액한 2억7120만원으로 편성했다. 총무부는 인건비 동결과 자연 상승분, 교역직 복지비용 확대 등을 반영해 3억3090만원 증액한 25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무부는 11억3443만원이 증액됐지만 대부분 타회계 전출금과 예비비로 활용된다. 이외에 사회부는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해체와 화쟁위원회의 백년대계본부 편입 등에 따라 2억9360만원 감소한 19억1530만원, 문화부는 안국선원의 희사금 중단과 전통문화사진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6910만원 감액한 8억6490만원, 포교원은 사업예산 축소 지적이 잇달아 4309만원 증액한 27억4720만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본산성역화 37억5590만원 △승려복지 25억7840만원 △본지점 20억6909만원 △신도시시설건립(국고포함) 19억9260만원 등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대폭 늘었다. 총본산성역화와 승려복지는 사업진행 속도에 따른 적립액이 늘어난 것이며, 본지점은 한국문화연수원에 한옥체험관을 비롯한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건립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총본산성역화를 비롯해 종단 목적사업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예정이어서 중앙종무기관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재논의되나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1일 개회

종정감사 · 예산안 승인 외
사면 개정안 다시 다뤄야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가 11월 1일 개회하는 가운데 지난 회기서 이월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이번 종회 관심사로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종회서 함결 스님 외 26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부칙 삽입을 통해 멸빈자를 1회에 한해 사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시 고민 끝에 내린 멸빈 징계를 부칙으로 제한해 사면한다는 게 맞지 않는데다 종정 스님의 교시만으로 종헌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반면에 정치적 상황에 의한 멸빈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안건을 이월해 다시 토론하기로 했지만 3월 이후 종회가 열리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차 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이외에도 이번 종회서는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는 원로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석과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 원로의원으로는 월정사 원행 스님, 송광사 현호 스님, 봉선사 밀운 스님이 추천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심호계위원 · 법규위원 · 소청심사위원 ·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의 인사안도 다루며, 제8기 법계위원 위촉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건도 의사일정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세간에 불거진 범계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계의혹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눈에 띈다. 선광 스님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용주사 은처자 의혹과 환속한 前초심호계위원 성폭행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광 스님은 "조사기관인 호법부가 있지만 의혹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입법기구에서 나서는 걸 제안한 것"이라며 "떨어진 불교계의 사회적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전법사 제도 시행한다

시행령 공포… "전법 역량 강화"

종단 전법 ·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법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종무회의에서 제정 · 공포된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졸업하는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부터 적용되는 전법사 제도는 승가대학 과정에서 4년 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해 전법 · 포교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시행령에는 전법사 제도의 역할과 지원 자격, 선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교육과정에서 3.0이상의 평점을 받고, 사찰 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전법활동이 있는 학인에 한해 2급 전법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서류전형과 4급 승가고시, 교육위원회 심의 후 2급 전법사를 선발한다. 1급 전법사에게는 2급 전법사로 위촉된 스님 중 3급 승가고시 응시자에 한해 선발 자격이 주어진다. 전법포교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1, 2급 전법사에게는 장학승 선발에 대한특전도 부여된다.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비구 · 비구니계를 받고 말사 주지로 임명될 때까지 설법 등 전법 · 교화를 할 기회가 없다"면서 "전법사 제도를 통해 스님들이 전법 · 교화의 발심 계기를 삼고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은 개정된 종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과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도 공포했다. 개정령은 시행 중인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출가지도법사의 정의와 자격 · 역할을 명시해 행자 교육 중 이뤄지는 중도 퇴사율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방장 후보 선출 '또 무산'

10월 26일 산중총회 성원미달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0월 26일 설법전서 차기 통도사 방장 후보 추천을 위해 산중총회를 개최했으나 구성원 473명 중 200명만이 참석했다. 성원을 위해 예정된 오후 2시를 넘겨 2시 30분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성원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날 노천문도회는 지난 산중총회보다 많은 100여 명이 참석했지만 문도회 절반가량은 불참했다.

노천문도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문 스님이 방장 후보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셔서 성파 스님을 추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그럼에도 산중총회가 무산된 건 본사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문자를 보내고 본말사를 돌며 참석을 간청드렸으나 성원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래도 3월보다는 늘어난 상황이라 다음 산중총회 때 성원되도록 다시 애쓰겠다"면서 "성원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며 참회한다. 방장 공석 1년 이내에 새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총림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중은 산중총회 대신 간담회를 열고, 동안거 해제에 맞춰 내년 3월 초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평화와 희망을 한반도에!!!"
108군법당 찾아
평화와 희망을 수놓다



선묵혜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고
108염주 만들어가는 108평화순례단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용사들에게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정에는 행복을, 이웃에는 나눔을,
사회에는 소통을, 국가에는 안정을,
한반도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교신행단체입니다.



108평화순례단이 찾아 갈 108군법당

▣ 육군
국방부군종사(국방부) 계룡호국사(계룡대) 통일호국사(기무사) 호국의왕사(의무사) 화랑호국사(육사) 호국자운사(교육사) 호국대성사(군수사)
호국금련사(보급단) 호국비승사(항작사) 호국충정사(수방사) 호국사자사(특전사) 호국흑표사(13공수) 호국남성사(종행교) 호국학림사(학군교)
충성호국사(삼사) 호국무각사(보병학교) 호국충국사(부사관학교) 호국연무사(육군훈련소) 호국법련사(종군교) 호국용봉사(과후단) 호국무극사(의사일사)
호국법용사(1군사) 호국무열사(2작사) 호국선봉사(3군사) 호국충의사(수도군단) 호국일승사(1군단) 호국쌍룡사(2군단) 호국봉암사(3군단)
호국금강사(5군단) 호국불이사(6군단) 호국상승사(7군단) 호국충용사(8군단) 호국원광사(5군지사) 호국연호사(수기사) 호국자혜원(26여단)
호국천진사(1사단) 호국의선사(2사단) 쌍호정사(2사단17연대) 호국삼불사(3사단) 광복통일사(5사단) 호국청원사(6사단) 호국육칠사(6사단7연대)
호국백암사(7사단) 호국광정사(8사단) 호국백마사(9사단) 호국화랑사(11사단) 호국율지사(12사단 호국천불사(15사단) 호국연주사(17사단)
호국독도사(20사단) 호국충국사(60여단) 호국도솔사(21사단) 호국운학사(22사단) 호국용해사(23사단) 호국비룡사(25사단) 호국일월사(26사단)
호국대성사(27사단) 호국광명사(28사단) 호국불광사(30사단) 호국쌍룡사(92여단) 호국관음사(31사단) 호국대원사(32사단) 호국충경사(35사단)
백호정사(36사단) 호국충용사(37사단) 호국안국사(39사단) 호국심련사(50사단) 호국달마사(51사단) 호국광명사(52사단) 호국자운사(53사단)
호국봉화사(55사단) 호국백운사(56사단) 호국광명사(66사단)

▣ 해군
호국관조사(정보사) 호국해운사(작전사) 호국해안사(진기사) 호국충국사(교육사) 진해호국사(해사) 호국쌍룡사(해병대사) 호국해룡사(해병1사단)
호국청룡사(해병2사단) 호국흑룡사(해병6여단) 호국해항사(해군6전단) 호국승룡사(해병교육단) 호국해동사(1함대) 호국해봉사(2함대)
호국해광사(3함대) 호국해원사(인방사) 호국해봉사(해병9여단) 호국해관사(제주기지) 연평호국사(연평부대) 호국통해사(재경대대)

▣ 공군
성무호국사(공사) 충국성불사(교육사) 호국천룡사(작전사) 성무일승사(군수사) 호국금강사(1전비) 기룡호국사(3훈비) 호국보국사(5전비)
호국미타사(8전비) 호국화성사(10전비) 호국정각사(15전비) 호국비룡사(16전비) 호국영축사(17전비) 호국한송사(18전비) 호국항룡사(19전비)
호국통천사(20전비) 보리해법당(항공안전단)

선묵혜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는
108평화순례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8(상계동) 3층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108평화순례단 회원가입문의 ☎ (02)936-5936, (02)900-0193

신계사 복원 10주년 "불교 교류와 남북화해 결과물"

민추본, 전문가 초청 좌담회서 복원 불사 의미 짚어

불교 외 정세에 긍정적 영향
"남북불교 통합, 새 출발 기점"
전문가들, 내년 분기점 전망
국면 전환 앞서 새 사업 주문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기해 신계사 보수 작업 등 남북불교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남북 교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라 법흥왕 5년(519년) 보운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금강산 신계사는 역사적으로 왕실 원당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고려시대 탄문 스님, 조선시대 나운 · 대은 · 대응 스님, 근대 경허 · 만공 · 용성 스님 등 고승들이 주석한 사찰로 의미가 깊다. 6.25전쟁 때 건물이 모두 소실됐지만, 2004~2007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복원 불사한 후에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조계종 · 조불련과 현대아산 등 남북 관련 단체들은 약 60억 예산을 투입해 대웅전, 3층 석탑, 만세루, 산신각, 극락전 등을 발굴 · 복원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일지

1999.03.	북경 남북불교 대표 실무회담
2001.02.	신계사지에서 복원 기원법회 봉행
2003.01.	조계종-조불련 신계사 복원 불사 합의
2003.10.	신계사 복원 불사 금강산 남북공동 실무협의
2003.11.	남북공동 시 · 발굴 조사 실시
2004.04.	신계사 복원 착공식 봉행
2004.06.	조계종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
2005.02.	전체 복원 조감도 마련
⋮	
2007.10.13.	신계사 복원 준공식 봉행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2004~2007년 신계사 복원 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사진은 2004년 11월 20일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모습.

민추본은 "신계사 복원불사는 남북불교 교류 역량의 결집이자 통합의 기점"이라면서 "4년간 불사는 남북화해 협력을 통해 관개 개선을 추구한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추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실은 신계사 복원 불사가 남북화해협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족통일의 여정에서 남북불교의 통합은 여기서 또 다시 출발하는 기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계사를 거점으로 한 남북불교 교류는 경색된 남북정세로 인해 9년째 단절된 상황이다. 2015년 8.2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민간 교류가 잠시 재개됐을 때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공동법회'를 봉행한 것이 2008년 이후 유일하다.

2004년 신계사 복원불사 도감으로 파견됐던 제정 스님(現 불교문화재연구소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았다면 신계사 보수 작업은 물론, 내금강 장안사 복원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민간 교류의 길이 열려 남북이 함께 보수 · 복원 과정에 착수하는 것이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내년을 남북교류의 분기점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북미 관계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지만,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대북 사업 재개 준비에 착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은 "신계사는 불교 교류뿐 아니라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남북 관계가 내년에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예측한다. 불교계는 지금부터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한다. 신계사 복원을 뒤이을 새 사업 구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도 "위기는 있지만 내년에는 대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서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계사는 남북 교류 거점으로 작용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내금강 불교 유적 복원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내금강 인근에는 장안사 터와 마하연사 터, 서산대사비, 표훈사 등 내로라하는 불교유적들이 즐비해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훼손돼 보수 및 복원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7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 스님이 "남북불교 공동으로 내금강 불교 유적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정세 영향으로 무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내금강 불교유적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의 관심도 매우 컸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정세가 급격히 기울며 시범관광에서 그친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내금강 불교유적이 복원되면 한국 불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민추본부장 법타 스님도 "장안사를 비롯한 내금강 불교유적은 복원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포교원,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 나서

오는 12월 말 본격 개통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도등록 사이트를 9년 만에 개편하고 있다. 개편 사이트는 10월 31일 중간보고에 이어 12월 말 개통 예정이다.

신도등록 사이트는 2003년 10월 사찰과 신도들의 신도등록 편리성을 위해 포교원이 개발했다. 이번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2008년 개편 작업 이후 9년 만으로 기존 종무행정 프로그램들과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선 종무행정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 신도등록 사이트와 달리 웹을 이용해 사이트에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오류 현장을 바로잡고 사이트 접속 시 로그인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신도들이 보다 편하게 신도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효 스님 저술 역주서 발간 '봇물'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효 번역서 출판 잇달아

〈기신론소기회본〉 등 12종
원효 저술 정본화 사업 성과

원효 스님(617~686)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원효 스님 찬술 저서 모두를 한글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그 성과 중 일부를 내놨다. 학술적이고 대중적인 원효 스님의 저서 12종이 5권으로 묶여 번역된 것.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원효 스님의 저서를 한글로 번역해 그 일부를 5권의 책으로 묶어 출판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원효 탄신 1400주년 맞아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 일환으로 원효 저술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번역서 발간은 그 성과 중 일부다.

올해 1차로 출판된 문헌은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상권(역자 한명숙) △〈대승기신론소기회본〉(역자 은정희) △〈미륵상생경종요〉외 (역자 성재헌 외) △〈대혜도경종요〉 외 (역자 성재헌 외) △〈열반종요〉(역자 이평래) 등 12종 5책이다. 원효 저술 중 분량이 긴 문헌들은 1책으로 출판했고, 분량이 짧은 문헌들은 성격별로 분류해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한글 번역된 〈대승기신론소기회본〉(왼쪽)과 〈범망경보살계본사기〉 표지.

이번 역주서는 그간 적집됐던 원효 저술에 대한 정본화 성과와 관련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역주서에는 문헌별 상세한 해제가 수록됐다. 여기에 그간 진행됐던 연구 성과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면서 "특히 원효의 진찬 여부 등에 논란이 있는 〈유심안락도〉와 같은 문헌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기된 연구 성과를 최대한 소개함으로써 원효에 대한 연구가 보다 높은 지평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효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이평래, 은정희 등 전문학자들이 역주자로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내년 출판 예정인 원효의 산일문 및 집일본에 대한 역주는 그간 한국에서 소개된 적이 없었던 원효의 저술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원효의 다양한 저술들은 특히 일본 고대 불교도들의 저술 가운데 많이 인용됐다. 현재 이들을 추출하여 원효 저술의 내용과 규모를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작업의 성과들이 출판되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원효 저술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불 스님 주축 '불교희망연대' 만든다

10월 25일 발기인대회…선대위원 대거 참여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나섰던 수불 스님과 선거대책위원들이 뜻을 모아 '불교희망연대'를 출범했다.

불교희망연대 준비위원회는 10월 25일 서울 AW컨벤션 아젤리아룸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종책 개발과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등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사진〉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불교콘텐츠 개발 △불교 사회문화운동 및 남북관계 지원 △종책연구소 설치 △승가인재 양성 지원 △간화선 세계화 및 해외 수행체계 공유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 법인 등록과 인터넷언론사 창립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내 창립할 예정이다. 이날 준비위는 불교희망연대 고문으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회장으로 前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추대했다.

고문 수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역대 선각자들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큰 발심과 분심을 내어 마침내



법등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면서 "구종, 구불교의 원력에 동의하고 함께하실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의지처가 되자"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법륜승가회장 법보 스님과 前해외교구장 휘광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불교희망연대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비롯해 종삼 · 미산 스님 등 총무원장 선거대책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단 인사
사무국장 묘인·사업국장 탄덕 스님


묘인 스님


탄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4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묘인 스님, 사업국장에 탄덕 스님을 임명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사무국장 묘인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8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화엄탑사 주지를 역임했다.

사업국장 탄덕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선센터 총무, 직할교구 백련암 총무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2017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천안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사진〉은 10월 19일 KBS공개홀서 진행된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경 스님은 충남 청소년 쉼터를 설립하여 20년간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해 왔으며,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위문행사,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급,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 4억 6000여 만원을 사회에 환원해왔다.

노덕현 기자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 오백나한을 기념하는 오백나한대재가 10월 22일 오백전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주지 연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수행자가 진정한 '나한'"이라며 "오백나한대재는 오백나한의 수행의 가치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증심사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은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한국전쟁 때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으나 오백나한전만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대 구성원·지역민 위한 도량 만들 것"

Interview

동국대 신임 정각원장 묘주 스님



10월 24일 임용장 수여
기존 프로그램 활용하며
경전 독송 등 확대 계획
혜광사 신축에도 힘쓸 것

"제가 동국대 80학번입니다. 그동안 모교의 품안에서 학업 연구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번에 동국대 정각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 같은 모교의 은혜를 보답하고 잘 회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임명해주신 이사장 지광 스님과 총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각원이 학내 구성원들의 좋은 신행 중심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4일 동국대 정각원장에 임명된 묘주 스님〈사진〉은 임명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묘주 스님은 정각원이 동국대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을 위한 신행 도량인 만큼 구성원들의 신행 진작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각원은 상아탑에 걸맞는 지적이면서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업무와 프로그램을 자세히 파악하고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독송이나 천수다라니·광명진언 염송, 참선 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려고 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정각원에 자주 찾아와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잠시 수행·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이 중구 시민과 불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목요법회와 신행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운영하며,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도 묘주 스님의 계획이다.

또한, 묘주 스님은 임명식에서 총장 보광 스님이 당부한 비구니 수행관 혜광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혜광사는 건물 노후화로 곳곳에 균열이 생겨서, 비구니 학인스님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신임 정각원장 묘주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 인도불교전공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전북 익산 연국사 주지다.

한편, 묘주 스님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매듭솜씨, 불교여성광장 위해 재능기부"
성낙윤 선생, 11월 8일부터 오색 매듭 염주 솜씨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행의 일환으로 매듭을 지어왔습니다. 보다 좋은 일에 매듭작품이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대중에 선뵈는 솜씨전을 열게 됐어요."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리수에서 성낙윤 선생의 솜씨전을 개최한다. 성낙윤 선생은 40년 넘게 매듭을 비롯해 각종 수공예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예가다.

성낙윤 선생은 10월 24일 인사동에서 열린 간담회서 "오색 매듭 염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엮었다. 한달에 3~4개씩 정성을 다한 것들을 모아 마련한 기금을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회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선생은 1975년 일단지에서 매듭장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인간문화재 최은순 씨에게서 매듭을 배웠다. 역시 인간문화재 김점순 씨에게 길쌈을 배우고, 일본 동경 세이쥬 공예학원도 나왔다.

강남 봉은사를 다니는 그녀는 아침에 향을 켜고 천수경을 외며 하루를 시작한다.

"작업 삼매가 바로 수행과 같습니다. 요즘 불구점에는 중국산 염주 등이 많은데 작은 것부터 불자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공예 작업 중인 성낙윤 선생.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 2017 기자상 후보작 접수
11월 13일까지, 불교언론인 장학금도

한국불교협회(회장 김현태)는 11월 6~13일 2017년도 한국불교기자상 후보작을 접수한다. 접수대상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내 보도된 기사로, 담당기자는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정회원이어야 한다.

시상부문은 △대상(선원빈기자상) △기획·해설부문 △취재·보도부문 각 1명이다. 출품지원서에 본인 또는 정회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보도 관련자료 각 3부를 한국불교기자협회 사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11월 21일경 진행되며 심사종료 즉시 수상작이 발표된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또한 '2017 불교언론인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정회원·명예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와 그 직계자손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는 초·중학생 30만원과 고교생 50만원(각 1명)이 주어진다. 단, 본인 장학금(대학원 석·박사과정)은 올해 선발하지 않는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시상식은 12월 4일 열리는 불교기자협회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중국 스님들 월정사서 수행체험
종단협, 10월 23~30일 韓中수행문화교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0월 23~30일 평창 월정사 일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부속사업 일환으로 한중(韓中) 수행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국불교협회 국제포교사 36명(비구 19·비구니 16)은 먼저 4박 5일간 월정사에 머물며 △좌선 △발우공양 △연등 만들기 △탑돌이 △한국불교 강의 △좌담회 △산내암자 탐방 등을 체험했다. 이어 27일부터는 서울 봉은사와 관문사, 부산 삼광사, 경주 불국사 등 성지순례 및 국내명소를 탐방했다.

윤호섭 기자

법왕사, 정무 대종사 다례재 봉행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월 2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원공당 정무 대종사 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정각회장), 문중스님들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실상 스님은 "생전 은사스님은 아무리 가람수호에 바빠도 정법포교에 전념하라는 유지를 남겨셨다.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재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는 10월 16일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당 청봉 대종사,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대종사, 대한불교화엄종 종정 엄산대 종사, 대원불교조계종 종회의장 덕오 대종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강남 봉은사는 10월 22일 경내 미륵광장에서 한복 패션쇼 및 불교식 혼례 재현 행사 '한복에 홀린' 을 개최했다. 이날 이유숙 디자이너의 한복 70여벌은 모델들의 워킹을 통해 살아있는 예술로 재탄생했다.



패션쇼가 피날레에 이르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트렸다.



2부에서는 불교식 혼례 재현 행사가 이뤄졌다.



이날 패션쇼장을 찾은 1,000여 관객들은 한복의 미에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도심의 밤 수놓은 한복에 홀.리.다.

[현장] 봉은사 한복 패션쇼 및 불교식 혼례 재현 행사

한복의날 맞아 전통 우수성 알려
이유숙 디자이너 작품 70여점 선봬
사찰서 패션쇼 '이색' 광경에 '화제'
불교식 혼례 재현 "편견 깨는 계기"

"신랑 신부는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 것을 부처님 앞에 다짐합니까?"

"네!"

낭랑하고도 우렁찬 신부의 목소리에 장내에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얀 웨딩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에게서 순간 색동저고리 입은 아이의 천진함이 비쳤다. 주례 보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흐뭇한 웃음을 짓고, 청중들은 큰 박수로 신랑 신부의 앞날을 함께 서원했다. 모두에게 행복이 깃든 순간이었다.

강남 봉은사는 10월 22일 경내 미륵광장에서 한복 패션쇼 및 불교식 혼례 재현 행사 '한복에 홀린' 을 개최했다. 한복의날(21일)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찰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린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 불교와 전통문화, 현대의 융합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깊었다.

1부는 '거닐다, 스치다, 만나다, 맺다' 를 주제로 패션쇼가 열렸다. 미륵대불 앞에 펼쳐진 런웨이가 진풍경을 연출했다. 도심사찰의 밤과 조명, 미륵대불을 둘러싼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전문 패션쇼장 못지않은 화려함을 뽐냈다. 이에 더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의상감독을 맡았던 이유숙 디자이너의 한복 70여벌은 모델들의 워킹을 통해 살아있는 예술로 재탄생했다. 밤하늘 별처럼 봉은사의 밤을 수놓은 한복의 미에 관객들은 연이은 감탄을 쏟아냈다.

남궁진여성(59) 씨는 "절에서 패션쇼를 한다기에 의구심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한 무대에 경이로움까지 느꼈다"면서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웃어보였다. 배수현(25) 씨는 "사찰이 전통문화 홍보를 위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무대에 오른 한복 디자인들이 상용될 수 있도록 사찰에서 대여 ·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모델로서 무대에 선 엄예진(18) 씨는 "절에서 패션쇼를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반 패션쇼도 이렇게 큰 장소는 많지 않은데, 넓은 공간 덕분에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장엄한 산사의 분위기가 잘 어울려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부는 '고하다, 밝히다, 서약하다, 혼례 치르다' 를 주제로 불교식 혼례를 재현했다. 불교식 혼례는 한국 불교의례 교과서로 불려지는 〈석문의범(釋門儀範, 1935년 간행)〉을 통해 전해오고 있다. 〈석문의범〉에는 '사찰 혼례의식' 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사찰 혼례는 타종, 촛불점화, 삼법공양, 도량결계, 고유문 봉독, 헌화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날 가상 신랑 신부는 이유숙 디자이너의 웨딩 한복을 입고 미륵대불 앞 광장을 버진로드 삼아 행진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꽃 장식은 없었지만 부처님 전에 백년가약을 약속한다는 것만으로도 환희를 자아냈다.

"천생연분은 하늘이 지어준 연인이란 뜻이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가 천생연분이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항상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명 스님의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는 부처님 전에 7송이 꽃을 올렸다. 헌화 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혜' 란 수행자로 살 때,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할 꽃을 구하던 중 '구리' 란 궁녀에게서 7송이 꽃을 구했다는 설에서 유래한다. 선혜와 궁녀는 훗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신랑 신부가 퇴장하자 청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한복과 불교가 만들어낸 절묘한 조화에 저마다 감탄을 터트렸다.

피날레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역시 이유숙 디자이너였다. 이 디자이너는 " '결혼식에서 전통 한복을 입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는 주지 스님의 깊은 뜻에 크게 공감해 이 자리를 마련다. 가을날, 봉은사라는 멋진 공간에서 한복 패션쇼를 연 것은 가슴 떨리는 황홀한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통 불교 혼례, 화려하고 의미 깊어"

Interview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저도 가끔 주례를 봅니다만, 요즘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이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의식으로 백년가약을 약속합니다. 이 가운데 부처님 앞에서 부부간 서약을 한다면 얼마나 뜻 깊을까요? 불교식 결혼 예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서 불교식 혼례법을 재현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은 요즘 획일화된 결혼식에서 불교식 혼례가 참신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똑같은 순서와 예복, 공간 대신 전통한복을 입고 사찰서 올리는 결혼식이 더 의미가 깊다는 것.

특히 원명 스님은 불교식 혼례가 '촌스럽다' 는 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불교식 결혼 예법이 있음에도 불구, 불자들마저도 자녀들에게 불교식 혼례를 장려하지 않는다"면서 "불교식 혼례가 촌스럽다는 편견이 있는데, 전통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것도 충분히 장엄하고 화려하다. 불교식 혼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1,270개 사찰 주지스님 일동

청년 고민듣기로 문 연 미래세대위원회

10월 21일 공식 출범, 토크로 청년불자 소통

대불련과 조계사청년회 청년불자 90여 명 동참
취업 · 대인관계 · 결혼 등 다양한 주제 고민 쏟아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무대에서 3인의 청년멘토와 청년불자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모습.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불교동아리 활동경험 덕분에 불교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좋게 봐주신 선배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업무에 비해 적은 월급인데다 이직 시 경력 인정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포 · 5포세대, 헬조선…. 이 시대 청년들을 표현하는, 그리고 청년들이 표현하는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단어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불교계가 이들의 고민 듣기에 나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0월 21일 저녁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으로 청년불자들이 삶에서 갖는 고민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원과 조계사 청년회원 90여 명은 진행자의 사연 소개와 질문에 맞춰 개인 생각을 표현하고, 조언을 들으며 소통했다. 진행은 마음치유학교 지도법사 운성 스님과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 대표, 박지연 대불련 간사가 맡았다.

첫 사연은 결혼한 지 1달 된 청년불자. 신행활동을 함에 있어 무교인 아내의 눈치가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진행자는 대중에게 종교가 같은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90여 명 중 7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불자임을 숨긴 적이 있다고 밝힌 청년도 30명이 넘었다.

대불련 소속임을 밝힌 한 대학생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누군가는 종교를 부정적으로 본다. 관계가 괜히 불편해질까봐 단주도 빼고 만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운성 스님은 "미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쫓아와서 불자들의 사회적 실천이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것에 비하면 많이 슬픈 얘기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종교를 숨겨야하는 것으로 위상이 떨어졌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에 대해서는 "신행생활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내와 데이트 하듯이 아름다운 사찰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 가볍게 불교와 가까워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 사연은 불교계 첫 직장에 대한 취업 고민이었다. 여기서는 많은 청년불자들이 돈보다는 근로시간 등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계사 청년회원은 "연봉이 적더라도 근무시간 짧은 게 좋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운성 스님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감수만 된다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며 "다만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주로 결핍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열 대표 역시 "고민상담을 하다보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결국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삶의 기준이 부정확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은 단순히 사업목표나 계획에 대한 설명보다는 젊은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계가 그동안 청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청년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한 참가자는 "불교는 어른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많다. 그만큼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고, 불교도 청년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막 출범했지만 미래세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불교계가 청년들에게도 눈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범식에서 위원장 심산 스님은 "청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적극 살피고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면서 "청춘이라는 단어에 미래와 희망을 넣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백년대계본부장 도법 스님, 미래세대위원 가섭?일감?수안스님, 이경수 대불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주 KCRP 대표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불자개그맨 양상국 씨가 영상으로 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년포교 활성화 위해 지도법사 매뉴얼 체계화

대불련, 10월 19일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간담회 개최



10월 19일 열린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 간담회 모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 이하 대불련)가 대학생 및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도법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지도법사 교육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유의사항, 상담사례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불련은 10월 1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본공 스님을 비롯해 사무국장 효석 스님, 인하대 지도법사 혜한 스님 등 지도법사 스님들과 대불련 중앙사무국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련 관계자들은 각 학교 불교동아리의 법회 방법 및 불교동아리 운영방법, 법회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 및 어려운점을 공유했다.

특히 지도법사가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소임을 맡는 것이 대불련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라는데 입장을 모았다.

한양대 지도법사이기도 한 본공 스님은 "학기 초 불교학생회 법우들과 지도법사가 캠퍼스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효과가 있다. 오랜 기간 지도법사 경험이 쌓이면 학생 상담 사례 모음 등 노하우가 생긴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지대 지도법사 지홍 스님도 "전임 지도법사 스님이 오랫동안 함께해 학생들이 이미 불교적 소양이 갖춰져 있다. 지속적이로 체계적인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불련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도법사 교육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 지도법사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의사항과 상담사례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을 위한 법요집도 제작해 불교동아리에 배표하기로 했다.

한편, 대불련은 11월 4일 광주 증심사서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열고, 11월 9일 오후6시 서울 고려대 4 · 18 소극장에서 서울지부 연합법회를 개최한다. 이어 11월 11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차기 대불련 중앙회장 후보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030 불교 이끌 '봉은사 108청년' 발대

10월 21일, 봉은사 청년회 '108청년' 발대식 개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108명이 모였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봉은사 청년회 108청년'(이하 108청년) 발대식을 10월 21일 법왕루에서 개최했다. 20~30대 청년불자 108명으로 구성되는 '108청년'은 청년불자 집중 양성을 위해 법회, 행사, 템플스테이, 봉사 등 다양한 사중 활동을 펼친다.

기존 봉은사 청년회는 1982년 출범해 성지순례, 3000배 철야정진, 부처님오신날 등 사중 행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수행 등 폭넓게 활동해왔다. 특히 신입회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별도로 운영, 새 법우가 불교와 사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또한 체계적 임원조직을 갖추고 활성화된 청년회를 꾸려왔다.

봉은사는 이번 '108청년' 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 청년불자 포교의 중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주지 원명 스님은 "많은 청년불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봉은사가 활력 있고 젊어진 듯한 기분"이라면서 "신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도, 불교와 절을 위해서도 아니다. 불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 의해 봉은사가 더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 청년회원' 표창도 이뤄졌다. 심재남 청년회장은 "108청년은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자 모였으나 각자 청년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다르다"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바람을 충족시키 위해 여러 신행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령별 소통 기회 지속적으로 넓히자"

서울노인복지센터 10월 25일 노인 권익 포럼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소통을 주제로 한 서울노인영화제가 10월 25일 대한극장에서 제10회 대회를 개막했다. 개막에 앞서 24일에는 서울노인영화제 의미를 살피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인 권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발제를 통해 "영화에 필요한 기술력보다 공감과 인식 개선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넓혀 연령 통합을 이끌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하이오 주립대 윤아영 박사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글과 미디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목소리를 담고 사회와 소통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참여까지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의 확장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노인영화제는 대한극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서울극장과 피카디리 등 종로구 내 5개 상영관에서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로 한마음된 아시아 장애인 불자들

보리수아래 10월 25일 북콘서트 '눈길'

아시아 불자장애 시인들의 공동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불자장애인모임 '보리수아래'는 10월 25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빵 한 개와 칼 한자루'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시집에는 한국과 미얀마 장애인 불자들이 불심으로 장애를 극복한 내용이 시로 담겨있다. 보리수아래 회원 시인 5명과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 시인 7명이 각각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번역해 총 37편을 실었다.

북콘서트에서는 보리수아래 지도법사 법인 스님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시낭송, 수화노래, 니르바니 오케스트라 음성공양, 피아노 병창 등이 진행됐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불자장애인들의 작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시아 불교국가 내 불자장애인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이번 북콘서트를 만련했다"며 "향후 불교국가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대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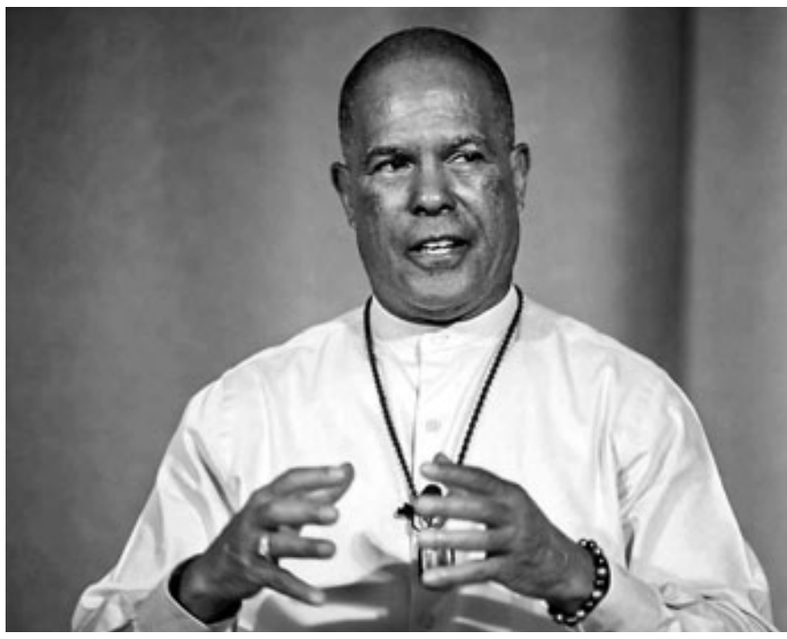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2동 637 / 전화 02)919-0211 팩스 02)919-0216
www.bongguksa.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두려움’은 잘못된 관심… 내면의 본질을 보라”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는…론다 번(Rhonda Byrne)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도서 및 영화 <더 시크릿(The Secret)>에 등장한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다. 지난해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 ‘슈퍼 소울 선데이–더 시크릿 쇼’ 편에 출연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파한 바 있다. 2004년 아프리카 평화 공로상, 2008년 마하리쉬상 및 시민모델상 등 수상한 바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Interview |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세계적 힐링 멘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는 현상이 나 스스로 끌어당긴 것이란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 세계적 힐링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가 강조하며 전 세계에게 큰 감명을 준 이론이다. 10월 20~25일 열린 ‘제3회 슈퍼 소울 릴레이’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19일, 언론 간담회를 가졌다.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는 이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행복지수와 정신적 피폐 현상에 대해 거론하며 “명상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거두고, 내면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Q.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인간은 기본적으로 진동을 합니다. ‘주파수’ 진동입니다.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각, 말, 그리고 행동들이 진동하게 되면 삶 속에 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풍요로움, 번영, 환희의 감정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발산의 법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곳에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현의 법칙’에 따라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Q. 본인의 생각은 삶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요?

A. 네, 생각이란 정신적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즉, 측정이 가능합니다. 생각은 지각으로 변형되며, 지각과 더 많은 생각들은 곧 경험이 됩니다.

Q.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우울함, 외로움,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각, 지각, 그리고 느낌을 변화시키면서 (정신적 분위기를 쇄신할)기회가 생깁니다. 이 때 이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영감을 받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에너지를 잠시라도 잡을 수 있다면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우 심오한 논리인데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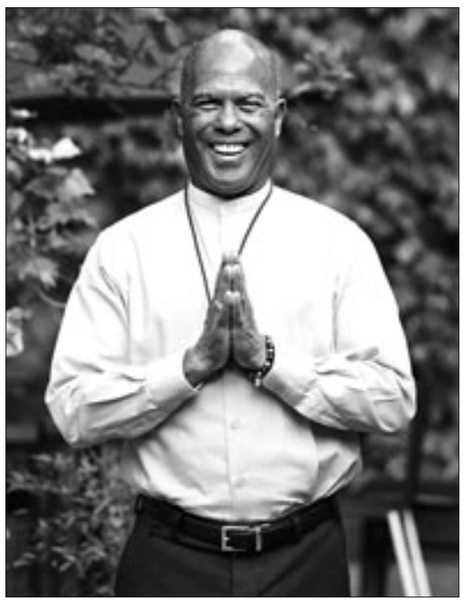
A. 국제영성센터 ‘아가페(Agape)’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건설, 임대 및 임금 지불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됐고, 점입가경으로 점점 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회를 소집해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각 이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가능할 것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일주일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그동안 그 가능성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들어오기 전에 건설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며 건설을 시작했습니다.제가 한 일은 모두에게 가능성을 느끼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Q.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비전은 미래가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입니다. 비전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면에 있는 동적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오크 나무는 이미 도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토리가 비전이라면, 오크 나무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Q.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삶의 비전을 찾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모두에게는 위대한 운명이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인생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연마하면, 자기 내면을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관점, 그리고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내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 저항하면 되레 지속
명상 통해 불안감 해소하고
관심 ‘실존하는 것’에 둬야
‘열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Q. 한국이 OECD 국가 중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란 걸 알고 있나요? 슬픈 얘기지만, 왜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A. 어쩌면 북한과 남한의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과 두려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저는 두려움이란 잘못된 관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심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두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불안감이 없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Q. 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A. 네, 하지만 ‘이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려 하거나 저항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미래에 다가올 불안감으로부터 멀어지며 관심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두게 됩니다.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호흡과 같이 실제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오면 의식 속 새로운 곳에 도달하게 되며, 현실 속에 살지만 그것을 의식하며 삽니다.한마디로 ‘현실’을 말합니다. 지식, 사랑, 아름다움, 조화, 웰빙 등을 찾으면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곧 흥분이 되고, 열정으로 변화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흥분으로, 그리고 다시 열정으로 변화하며, 신과 함께 평화 속에서 열정을 갖고 살게 됩니다.

Q. 한국 사회에는 최근 정신 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A. 개개인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들은 즉각적인 희열을 원합니다. 마이크로파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평화로움을 얻기 위해 내면을 수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상황은 변합니다. 현재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것은 충족되었고 모든 욕구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적이어야 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내면의 신성한 자극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금씩 수련하다보면 삶이 에너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Q. 한국인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죠. 심지어 오래 쉬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성향 때문에 명상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고,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한국인들에게 쉽지 않으면 뉴욕에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불안감과 경쟁심이 높고, 좋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해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은 속도를 줄이면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빨리 가려 할 때,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느리게 가면 더 빨리 갑니다.

Q. 명상은 불교의 오랜 전통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서 명상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1970년대에 저는 USC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정신 생물학 전공으로, 의대에 진학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때 빛, 광명, 사랑, 아름다움과 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한 탐구를 시작했고, 탐구를 하던 중 명상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했고, 아우로빈도 고시의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저는 종교를 초월한 많은 가르침들을 알게 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신성한 것과의 만남’이란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스스로 사색하며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사색 명상’이 있습니다. 불교는 호흡법을 통한 내면 명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명상 기법이 존재합니다. 사색이든, 실존주의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명상을 합니다.가끔 목사들을 보면 기도는 하지만 명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가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의 관계를 갖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이치입니다. 종교가 각 가지는 다양할지 몰라도 뿌리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A. 부름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부르는 점진적인 자극입니다. 그것은 자극, 신의 부름, 사랑, 지식 또는 삶이라 부를 수 있으며,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 부름은 당신의 내면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우리의 의식 활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고 자각하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인터뷰 내용은 11월 중 BTV불교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방송시간 추후공지.

〈관련 기사 B5면〉

(사)한국불교연구원

불연 이기영선생 추모
초청특강 및 기념행사

가을단풍이 산하대지를 뒤덮은 晩秋之節,
불연이기영 선생님의 추모기념행사에 인연 깊었던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9일은 현대 한국의 불교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학문적 업적을 남기신 불연이기영선생님이 홀연히 사바세계를 떠나신 날입니다. 불연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많은 뜻있는 분들에 의해 그 추모의 念은 이어지고 아울러 그 遺志의 뜻을 잇는 행사도 계속되어, 작년에는 서거 20週忌를 맞이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 유지의 뜻을 이어받아 올해는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초청특강과 좌담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올해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불연선생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보살의 이념을 실천하는 在家佛教徒의 역할과 그 실질적 위상에 대해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비교적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차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불교의 이념이 보편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전개되어야 할 상황에 재가의 불교도가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가져야하는 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想起해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와 그 사회적 실천을 겸비한 재가불교도로서 보살이 오늘날 어떠한 위상을 갖는 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연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과 아울러 그간 재가의 불교도로서 보살의 이념을 실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왕림해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일 시 : 2017년 11월 4일 (토) 오후 2시
■ 장 소 : (사)한국불교연구원 서울법당
■ 내 용 : 제1부 – 초청특강 및 좌담회 / 제2부 – 추모기념행사 / 제3부 – 구도인의 밤
■ 문 의 : ☎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 장 이태승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종화 합장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천년고찰 장안사 개산1344주년

불광고 개통식

불기2561(2017)년 11월 3일 오후2시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가을향기를 품다
국화작품 전시회
2017년 11월 3일 ~ 11월 12일 10일간

오채현작가
불모의 돌조각
소품전시회
2017년 11월 3일
~ 11월 말까지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사진공모전
기 간 : 2017년 11월 13일(월) ~ 12월 25일(월)
주 제 : 천년고찰 장안사를 소재로 한 모든 사진
문 의 : 010-5051-7875
이메일 : photohwang@naver.com
응모방법, 시상내역등 상세 공모요강은
홈페이지 http://busan.jeoiro.net/ 참고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성지 불광산
장안사

| 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 문의 |
051-727-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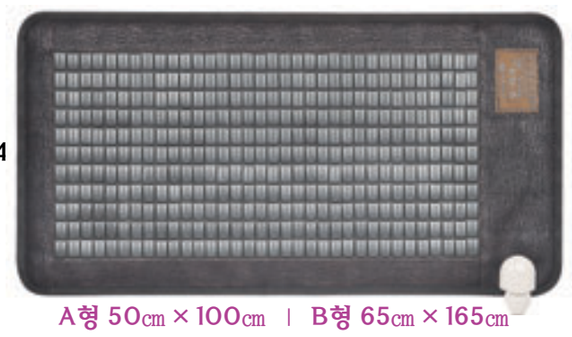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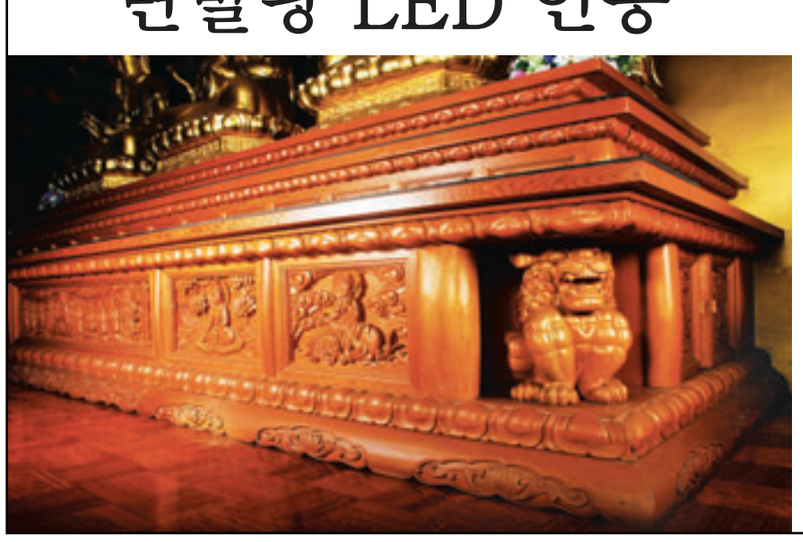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충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면발광 LED 인등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칠곡에 핀 우담바라

귀의 삼보 하옵고

금오산, 지리산 자락에서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온 소납 도오입니다.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천불사 가람 수행 중, 앞마당 소나무에서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 는 '우담바라꽃' 을 친견하게 되어, 이는 금륜 명왕이 나타난다는 경탄스러운 마음에서 스님, 사부대중에게 회향, 공덕 자비 보살행의 기회로 대 마음으로 알려드리오니 친견하시고 소원 성취이루시길 바립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태평1길 71(구, 북삼읍 보손리 823-12)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천 불 사**

주지 도오 합장 (010-6769-9627)

찾아오시는 길
경북고속도로 남김천IC에서
5분거리





찜질욕 / 효도상품 현금특별 판매가 135만원

편백황토찜질침대

스님편백비누삭발쾌

편향의
특허청 인증서



구입처 : 010-3280-7776

장보고 창건한

완도 법화사지 실체 확인됐다

완도군 · 동서문화재硏, 학술 발굴 조사 설명회

해상왕 장보고의 불심을 엿볼 수 있는 완도 법화사지의 실체가 확인됐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0월 25일 완도군 장좌리 법화사지 학술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법화사가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것이 확실하다고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발굴은 완도군이 문화재 발굴업체인 (재)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뤄졌다.

그간 법화사지는 위치를 놓고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발굴을 통해 정확한 위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화사지를 놓고 장좌리, 죽청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혀 198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절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199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장좌리에서 계단식 기단 위에 건물터가 확인됐고, 2016년 (재)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의 시굴 조사에서 중정지와 담장지가 발굴됐다.

발굴 결과 법화사지는 사역 전체에 장방형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ㅁ' 자형 중정지를 중심으로 건물지가 대칭된 형태로 마주하는 배치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담장지에서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담장이 축조된 시기가 대체로 12~13세기에 해당됨을 확인됐다. 또한 출토된

10월 25일 장좌리 일원서
건물지 · 통일신라 기와 확인
고려代까지 지속 운영 추정
2019년까지 사지 발굴 진행
사찰 복원 · 유물관 건립 계획

기와 중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와도 있어, 중창 당시 일부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주승 완도군청 문화재팀 학예연구사는 "중정지의 조성 수법과 건물지마다 확인되는 암거식 배수로 등은 법화사지 축조에 있어 구조적 세밀함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완도 장좌리 일원서 발굴된 법화사지 건물지 일부 전경. 사진제공=완도군청

법화사지는 건축 전반에 걸쳐 정밀한 기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절제된 공간 구성과 미학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구현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문선〉에 기록된 강진 백련사 2세 정명국사 천인 스님(1205~1248)이 몽골군 침략을 피해 완도 법화암으로 피난한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료로 전하는 시기와 법화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는 고려시대 유적 및 유물이 시기적으로 일치해 완도 법화사지가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 중기까지 지속 ·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고 이 학예연구사는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2019년까지 발굴을 진행하고 법화사지 복원을 위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법화사 복원과 발굴 유물 기념관 설립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향후 법화사지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사지 전체에 대한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 당시 구현된 건축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인근 장도 청해진 유적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근대 유산, 문화재 등록 잇달아

문화재청, 정광정혜원 등록 · 성륜사 안심당 등록 예고



목포 정광정혜원



곡성 성륜사 안심당 · 육화당

불교 근대 유산이 잇달아 문화재 등록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0월 23일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목포 정광정혜원, 영광 원불교 신흥교단 대각정 등과 항일독립문화유산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등 8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등록문화재 제696호로 지정된 '목포 정광정혜원'은 1918년 세워진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0월 19일 곡성 성륜사의 전각인 안심당 · 육화당을 비롯한 7건의 근대 유산들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곡성 성륜사 안심당 · 육화당은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곡성으로 옮겨 지은 건축물이다.

문화재청은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 건축기법을 부분 적용해 한옥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근대기 활동 화가이자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1922~2014)의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 예고된 곡성 성륜사 안심당 · 육화당 등 7건은 30일 간의 등록 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 논쟁' 시리즈 2번째 학술대회 열린다

불교학연구회, 11월 11일 대회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연속 연찬회를 열고 있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가 2번째 연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1일 오전 9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서 '인도 · 중국 · 티베트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연찬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한 2번째 연찬 학술대회다.

백봉선원장 월암 스님의 '선의 깨달음'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한상(동국대)의 '초기불교에서 본 재가자의 깨달음-순차적 공부와 차제설법을 중심으로' △김성철(금강대)의 '유가행파의 해탈적 인식' △이병욱(고려대)의 '천태종에서 바라보는 깨달음' 등이 발표된다.

또한 논평자로는 김준호(울산대), 이필원(동국대 경주캠), 남수영(동국대), 차상엽(금강대), 석길암(동국대 경주캠), 조윤경(동국대)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세친 철학 등 소장학자 논문 · 번역 눈길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14회 지원사업 결과 발표

이규완 연구원 등 4명 수상
논문 · 번역 부문 총서로 출간
오는 11월 1일 시상식 개최



이규완



박선영



최지연



류현정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회장 법상)이 매년 시행하는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10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회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상자로 박사 논문 부문에 이규완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극미 해석을 통해 본 세친 철학의 전이', 번역 부문에 박선영(동국대 불교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씨의 〈열반과 미륵의 도상학(미야지 아키라 著)〉, 최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 · 류현정(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 씨의 공역 〈사운다라난다(아쉬바고샤 著)〉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규완 연구원의 올해 박사학위 논문 '극미 해석을 통해 본 세친 철학의 전이'는 구사론주 세친의 극미설을 구사론과 유식이십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경량부적 실재론자에서 유식론자로 발전하는 세친의 사상적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유식이십론에서 이루어지는 극미론 비판에 착안해 기존 연구에서는 다소 등한시 한 극미론을 통해 세친의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논문의 서술은 원전에 근거해 매우 치밀하게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는 사유의 힘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선영 씨의 〈열반과 미륵의 도상학〉은 미야지 아키라의 저서로 미술사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론서다.

심사위원들은 "번역되면 국내의 불교미술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라며 "제출된 번역 원고는 내용 이해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문장도 유려해 좋은 번역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류현정 씨가 공역하기로 한 〈사운다라난다〉는 아쉬바고샤(마명)의 저서로, 〈불소행찬〉과 더불어 불교 산스크리트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이 같은 문헌이 국역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의 산스크리트학 수준의 부족함을 준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역이 시도되는 것은 최근 산스크리트학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4회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열리며, 박사 부문에는 편당 500만 원, 번역 지원 부문에는 편당 1천만 원이 지원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종교교육, '뇌과학'을 말하다

종교교육학회, 11월 3일 추계 학술대회

뇌과학을 통해 종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세곤)는 11월 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뇌과학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안호영(동국대)의 '종교, 교육은 가능한가- 뇌과학과 선불교를 중심으로'를 비롯해 △김경이 · 우정원(가톨릭대)의 '가톨릭 종교교육을 위한 뇌기반 학습과학 연구 동향 고찰' △정혜정(원광대)의 '뇌과학과 동학의 마음교육' △류현민(선문대)의 '신념 및 신앙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유제덕(서울신학대)의 '뇌과학과 기독교 교육- 개신교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재가불교 역할과 위상은

한국불교연구원, 11월 4일 초청 특강 · 좌담회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하는 특강이 열린다.

(사)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김종화)는 11월 4일 오후 2시 연구원 서울 법당에서 '불연 이기영 선생 추모 초청특강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안나카 나오후미 일본 입정대 교수가 '일본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이태승 한국불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진행된다. 좌담회 패널로는 안나카 나오후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원영상 원광대 정역원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불영 이기영 선생을 추모하는 기념행사와 신진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歸依에서 歸敬으로

쉽게, 평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에 대해서다. 둘이 아닌 하나를 거리를 넓혀 속세(俗世)와 속세를 저버린 뜻으로 과대포장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출가 수행자는 항시 우월한 존재로, 재가 수행자는 열등한 무리로 묶어두는 잘못을 불러들이고 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하나의 오늘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출가자(出家者)인 스님과 재가자(在家者)인 신도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불제자(佛弟子)집단이다.

우월과 열등의 선입견이 허락되지 않을 뿐더러 옷의 색깔과 모양의 형상에 따라 귀의처(歸依處)와 귀의자(歸依者)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불교에서는 마치 봉건시대의 계급사회처럼 출가수행자는 높은 곳에 재가수행자는 낮은 곳에서 헤매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젊은 스님은 설법할 때 높은 법상(法床)에 오르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고 학덕 깊은 노 교수는 서 있는 자세로 설법해야 하는 이상

출·재가, 나뉠 수 없는 불제자 집단
차별없는 평등의 수행체로 거듭나야

한 나라의 말뚝 박힌 모습이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어떤 행사를 치룰 경우에도 젊디젊은 주지 스님은 당연하게 독상을 차지해 식사하고 노 보살과 늙은 거사는 대중과 어울려 좁게 앉아 한 끼니를 스스로 찾아 챙겨야한다. 거기다가 스님의 설법엔 삼귀의(三歸依)와 청법가(請法歌)등이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 있지만 교수나 거사의 설법에는 복잡한 절차가 싹 뚝 잘려 간소하게 가볍게 치러진다.

법당 안에는 주지스님이 앉는 전용 방석이 색깔과 크기가 다르게 촌티 나게 버티고 있고 신도는 주지 스님께 삼배(三拜)하는 습관이 질기게도 관행처럼 정례화 되어 있다. 귀의삼보(歸依三寶)에서 귀경삼보(歸敬三寶)로 공감대를 넓혀 가야한다.

대접받는 문화가 뿌리를 깊게 내려 스님들은 의례히 받는 체질이 속물근성으로 굳어지며 미안함과 감사함, 고마움을 잊고 있다. 시대에 뒤진 마인드(mind)가 사찰 에서는 살아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출가자나 재가자는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같은 길의 불제자(佛弟子)이다. 승가(僧家)의 의미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의 집단을 칭함이다.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가 차별과 우열이 없이 하나의 수행집단으로 화합과 평등을 지향하며 행복과 자유의 실현을 실천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섬겨야할 신(神)이 없고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가 없다. 당연히 신(神)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따위가 있을 수 없고 화복(禍福)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존심 없이 떳떳치 않게 사찰경제를 앞세우며 운명론적으로 기우는 기복신앙을 상품화 한다든지 주술적 부끄러운 몸짓으로 신앙을 거래하는 일은 없었는지 살피고 또 살피며 뼈를 깍는 자가 반성이 있어야한다.

무당들이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둔 곳을 법당이라 부르지 않고 단순하게 불당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찰의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 게하는 가르침이 울려 퍼져야 이름 그대로 법당이 되는 것이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의 영험설화를 언제까지 풀어대며 당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해당 사찰과 스님들에게 묻고 싶다. 비구(比丘)는 법(法)을 찾아 수행하는 무소유(無所有)를 의미한다. 비우고 버리며 개운하게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한다.

한 평생을 수행했다는 스님들이 명예 부근에서 얼씬거리고 모으고 챙기는 일로 헐떡이며 흔들린다면 이들 무리는 해탈은 커녕 속물근성 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제도 받아야할 업덩이 중생일터.

비우면 편안하다. 버리면 개운하다. 나누면 기쁘다. 이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으로 신도들과 맞절하며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하나로 살 일이다. 꾸미고 드러내며 감추는 일이 줄어들게, 진솔하게 당당하게 개운하게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살 일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일 수 있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생각의 윤회를 줄이며 살 일이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화두를 들고 참구할 때에 오매일여(寤寐一如)라는 말이 있다. 잠을 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똑같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몽여교일(夢與覺一)이라는 말도 있다 깨달을 각 자를 이때는 잠깰 교자로 읽는다.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선사의 〈서장(書狀)〉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향시랑(向侍郞)에게 답해 준 편지에 "보내주신 편지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 꿈을 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하나'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대가 인연에 얽매인 마음으로써 법을 들으면 이 법 또한 인연에 얽매이게 된다' 하셨습니다.(능엄경 경문을 인용한 말)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꿈이 없다는 뜻이니,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대적인 '없음' 이 아니며, 꿈과 생시가 하나일 뿐이라는 뜻입니다.(示諭 悟與未悟 夢與覺一 一段因緣 黃面老子云 汝以緣心 聽法 此法亦緣 謂至人無夢 非有無之無 謂夢與非夢 一而已)"라고 하였다.

또 유보학(劉寶學)에게 답해준 편지에 "찌는 듯한 무더위에 편안한 곳에서 유유자적하시며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온각 마군의 어지럽힘은 없으십니까? 일상생활의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위의 가운데서 '개도 불성이 있는가?' 라는 화두를 한결같이 들고 있는지요? 시끄러운 환경이거나 고요한 환경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두가 항상 성성하십니까? 꿈을 꿀 때나 깨어 있을 때도 화두에 대한 의심이 똑 같으십니까? 근본적 이치와 구체적 현실에서 화두가 통일이 되십니까?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경계가 모두 똑같아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십니까?(卽日蒸Ⓒm不審 燕處悠然 放曠自如 無諸魔撓否 日用四威儀內 與狗子無佛性話一如否 於動靜二邊能不分別否 夢與覺合否 理與事會否 心與境皆如否)"라고 물었다.

위의 두 편지에서 대혜선사가 강조한 한 것이 간화선의 공부가 익숙해지면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져 선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꿈속에서도 공부가 된다? 꿈은 잠속에서 꾸어지는 것이므로 바꾸어 말하면 잠속에서도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다. 선정을 이루는 것이 공부이므로 실은 선정 안에서는 밤낮이 없고 깨고 잠듦이 없다는 말이다. 의식의 활동은 식심(識心)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므로 이 식심의 영역을 넘어서 깊은 심층에 이르러야 선정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대품반야경〉에는 '몽행반야(夢行般若)' 라는 말이 나온다. 꿈에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뜻이다. 꿈은 거짓이고 반야는 진실한 것이라고 보는 분별심을 물리치기 위해 설해진 말이다.

사리불과 수보리의 대화가 전개되는 대목이 있다. "그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만약 보살이 꿈속에서 세 가지 삼매인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에 들어가면 반야바라밀에 이익이 있습니까?' 수보리가 대답했다. ' 만약 보살이 낮에 세 가지 삼매에 들어서 반야바라밀에 이익이 있다면, 밤의 꿈속에서도 또한 그렇게 할 경우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꿈속은 평등하여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님, 만약 보살이 낮에 반야바라밀을 행하여 이익이 얻는다면 이 보살은 꿈속에서 반야바라밀을 행하여도 또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꿈에서도 선(善), 악(惡), 무기(無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다. 흔히 꿈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을 비유하여 나타낼 때 곧잘 쓰는 말이다. 그리고 꿈은 현실이 아닌 것, 곧 거짓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현실을 꿈으로 보는 예도 있다. 중생의 생사를 몽경으로 보는 비유도 있다. 생사대몽(生死大夢)이라 하여 나고 죽는 것을 큰 꿈이라 하였다.

서산대사의 유명한 삼몽사(三夢詞)라는 시가 있다. 금강산에서 내려와 한양으로 들어오던 길에 어느 주막에서 주인과 객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엿듣고 지었다는 즉흥시다.

主人夢說客(주인몽설객)
주인은 꿈을 나그네에게 말하고
客夢說主人(객몽설주인)
나그네는 꿈을 주인에게 말하네.
今說二夢客(금설이몽객)
지금 꿈 이야기 나누는 두 나그네여!
亦是夢中人(역시몽중인)
꿈속에서 꿈 이야기 하고 있구나.

마지막 4구는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체가 꿈인 줄 왜 모르냐는 것이다.

대비심 있어야 타인 괴로움 안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⑯ 공덕을 기르기 위해선

說悲品第二十三
世間人天阿修羅等。受身有種種苦。唯有菩薩徹髓悲者。知一切善法以悲爲首。智人當知。如似一切諸字悉曇爲首。一切善法皆入悲中。如似一舍眾色皆入。若見虛空淨æ 見大悲淨。見虛空無邊大悲亦無邊。佛說。若欲現前見我當恭敬大悲。若欲見我。當觀三界皆悉受苦。苦無邊故大悲亦無邊。苦住故大悲亦住。大悲住在。何處住在。一切眾生貪欲瞋ㄙ癡癡生老病死種種苦聚與諸眷屬在中而住。有大悲心能知他苦。此名與佛共住。有三種施一切功德養身。猶如乳母。是名大悲。

번역 | 설비품 제23
세상의 인간과 하늘, 아수라 등의 몸을 받으면 가지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직 보살만 철저하게 자비심을 따르는데, 일체 선법(善法)을 알고 자비심으로써 으뜸을 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응당 아는바 일체의 모든 글자가 실담(悉曇: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머리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의 선법(善法)이 다 자비 가운데 들어가나니, 하나의 우주에 뭇 색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허공의 깨끗함을 볼 수 있다면 대비심의 깨끗함도 보게 됩니다. 허공이 가없음을 볼 수 있듯이 대비심도 역시 한계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현재 나를 보고자 한다면 응당 대비심을 공경하라" 하셨고, "나를 보고자 한다면 응당 삼세(三世)가 모두 다 고통받는다는 것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가없기 때문에 대비심도 가없습니다. 괴로움이 머물기에 대비심도 역시 머무는 것입니다. 대비심이 머물러 있다면 어느 곳에 머물러 있겠는지요. 일체 중생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생로병사와, 가지가지 괴로움이 모인 곳과 더불어 모든 권속 가운데 있으며 머무릅니다. 대비심이 있어야 능히 타인의 괴로움을 압니다. 이것을 일러 부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보시가 있어야 일체 공덕의 몸을 기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이것을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해설 |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것을 삼종시(三種施)라고 한다. 삼종시(三種施)는 법을 설하는 법시(法施), 가진 재물을 보시하는 재시(財施),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를 이르는 말이다.

법보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엄경〉 십지품 중에서, '가령, 스스로 바른 행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함은 있을 수 없다(若自不能修行正行, 令他修者, 無有是處)' 는 말씀이 있다. 나는 스님이요, 당신은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가르치듯이 법을 베풀어서는 곤란하다. 십지품에서 보살은 '부끄러움을 옷으로 삼는(慙愧爲衣)다' 는 게송도 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함께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법보시의 참된 의미도 살아날 것이다.

재시(財施)의 주의할 점은 미리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마를 주었으니 스님은 나를 위해 얼마를 기도해야 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등을 놓아야 한다. 보시란 말 그대로 베푸는 것이요, 공양하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이 역연할 줄 알면 당연히 좋은 과보도 따라올 것을 믿어야 한다.

무외시(無畏施)는 중생의 두려움을 이용한 돈벌이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조상을 들먹이거나, 귀신을 들먹이거나, 지옥의 고통을 들먹여 추종하게 만들며, 재물을 바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일동

원광사 '자비도량 1번지' 도약 다짐

일일찻집 등 18년 동안 이어온 자비나눔 '화제'

18년 동안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원광사가 앞으로 '자비나눔 도량'으로 더욱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부산 원광사(주지 인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제18회 일일찻집을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새마을 금고 2층에서 개최한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작은 일일찻집이지만 원광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지역 내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행사다.

일일찻집은 오전 10시~오후 9시 운영되며, 오후 6시에는 현대음악 및 국악 등 작은 공연도 볼 수 있다. 또한 기금마련을 위한 천연염색 작품, 먹거리 판매와 인오 스님의 달마도도 만날 수 있다.

일일찻집은 원광사가 1년간 진행한 기금운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원광사는 1년 동안 경내 문수전에 불전함을 마련하고,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 중이다.

자비나눔에 대한 계기를 묻자 인오 스님은 "처음 울산 대각사에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포교는 곧 자비 실천이며 대중과 함께 하는 삶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대각사에 갔을 때 신도가 1명이였다. 그 때부터 일일찻집을 열고 보시행을 실천하려 애썼다. 대웅전이 작았는데 문을 위로 올려 젖히니 대웅전이 곧 무대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꾸준함이 곧 신뢰가 됐고 지금은 지역민들이 300명 넘게 찾는 행사가 됐다"고 자비 실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부산 원광사가 일일찻집, 무료급식 및 장학금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나눔도량으로 천명한 인오 스님이 이병욱 원광장학회 신임 회장과 활짝 웃고 있다.

11월 11일 18회 일일찻집 개최

연간 이웃돕기 '문수 불전함' 운영

난치병 아동·청소년 장학금에 쓰여

주지 인오 스님 "자비는 곧 포교"

원각사는 현재 부산 사직동에 위치해 있다. 규모는 작은 도량이지만 주지 스님의 나눔 원력은 원광장학회와 무료급식 봉사팀 자비사랑실천회 탄생의 원동력이 됐다. 원광 장학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는 매년 동래구청, 동래 경찰서, 사직동사무소 및 인근 학교에서 직접 추천을 받는다.

아울러 원광장학회를 위해 최근 이병욱 (주)미래랜드&미래더원 회장이 후원회장으로 나섰다. 이병욱 회장은 부산시장애인복지회 후원회장으로 현재 부산 16개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고 부동산 사업가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4년에는 '미래창조개발포럼'을 창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미래창조개발포럼'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 300여명이 모여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명 착한 부동산 사업을 펼치기 위해 '미래창조개발포럼'을 창립할 정도로 서민을 위한 사회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자 기업가다.

인오 스님은 앞으로 이병욱 원광장학회 회장과 함께 불교 사회 기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포부다.

인오 스님은 "이병욱 회장과는 좋은 인연으로 힘을 많이 얻고 있다"며 "앞으로 병원과 협의해 난치병 환우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의성 고운사, 사찰음식 성지로 '우뚝'

2017 사찰음식문화제에 3,000여 명 몰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2017 고운사 사찰음식문화제'가 10월 22일 열렸다.〈사진〉

'절집의 차와 후식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잎밥 시식 △전통차 시연 △사찰음식 전시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특히 연잎밥은 무료로 제공돼 이날 방문한 3,000여 사부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6교구 말사 중 13개 사찰이 참여한 사찰음식 나눔 체험행사에는 고운사의 청국장과 유부탕, 연미사의 사찰야채피자와 녹두전, 봉정사의 연근장아찌, 서악사의 우리쌀 단팥방, 석수암의 떡메인절미, 대원사의 삼색떡꼬치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지 호성 스님은 "화엄사상에 비춰 보면 고운사 사찰음식 문화제를 '서로 배려하고 하나된다'는 의미에서 '삼청정'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이번 문화제에는 사찰음식 외에도 의성군민들의 우수 농산물 전시홍보 판매부스도 10여 곳 설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운사는 앞서 21일 제10회 천년솔향 청소년 문화제 '짝꿍과 함께 솔향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희망을 쓰고, 표현하며, 스토리텔링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상북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의성군수상, 동국대 총장상 등 수상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부산불교교육대학, 한마음 대축제 개최

개교 36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10월 22일 부산 개금초에서 개교 36주년 기념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다.〈사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전국에서 최초 설립된 불교대학으로 전법 활동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를 기념하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날 조계종 대강백이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과 이상순 前 부산불교교육대학 관리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각성 스님과 이상순 前 관리실장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초창기에 강의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당시 운영하던 화엄회관을 강의실로 8년 동안 무료 보시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한국불교에 길이 남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 사명의 주역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원순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열려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대표 김윤희)는 승·재가를 위한 강의 '제5기 육조단경'을 마련한다. 개강일은 11월 6일 오후 7시로, 장소는 부산 서면 묘광선원 4층이다. 강의 기간은 11월 6일~2월 26일,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마다 개최한다. 교재는 원순 스님이 직접 쓴 〈돈황 법보단경〉이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교재비 1만5,000원은 별도이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주석하고 있다.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 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김윤희 열린불교아카데미 대표는 "〈육조단경〉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경전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051)244-0263

하성미 기자

장안사, 가을향기로 수놓는 천년고찰

11월 3일 개산 1344주년 다채로운 기념행사

국화 작품전시회·사진공모전 등 '풍성'

천년고찰 장안사가 개산1344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지역민을 초대한다.

장안사(주지 정오)는 개산1344주년을 맞아 11월 3일 오후 2시 불광교 개통식을 시작으로 국화작품전시회, 오채현 작가의 '불모의 돌조각' 전시 및 사진공모전을 등을 진행한다.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가을향기를 품다' 국화작품전시회는 11월 3~12일 10일간 경내를 물들인다. 국화작품은 기장국화분과동호회가 국화분재 목석부작 100여점을 선보인다.

장안사는 "국화작품전시를 통해 기장군민들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사진공모전도 마련된다. 공모는 천년고찰 장안사를 중심으로 표현한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장안사를 소재로 한 모든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11월 3일에 열리는 '천년고찰 장안사 국화 향기를 품다'도 주제에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11월 13일~12월 25일이며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출품료 무료. 응모방법은 디지털 JPG 파일로 1,200만 화소(3,000픽셀 이상 크기)여야 하며 이메일(photohwang@naver.com)로만 접수받는다. 응모메일에는 촬영일시, 장소, 촬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출품수는 1인당 6점 이내이며 2017년 1월 이후 촬영 사진으로 미발표작이여야 한다.

결과발표는 2018년 5월 초 개별통보하며 시상내역은 대상(1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2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동상(3명)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상(21명) 상패 및 상금 10만원이다. 시상은 2018년 5월 부처님오신날로 예정돼 있으며 장안사 경내에 시상식 날 전시된다.

행사 기간 오채현 작가의 '불모의 돌조각' 소품 전시회도 11월 3~30일 열린다. 오채현 작가는 바티칸 한국대사관에 한복 입은 성모상을 제작한 바 있다. 주로 거친 화강석으로 호랑이, 석불 등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한국 정서를 표현해내는 조각가이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풍요로운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기장군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장안사에도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었다"며 "개산을 맞아 시민을 위해 장안사 경내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051)727-2393

하성미 기자

"노래로 이루는 화합, 그리고 통일"

총지종,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제6회 통일음악예술제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10월 2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회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통일음악예술제는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한 진리의 법문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전하는 거룩한 자리"라며 "예술제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월주 스님 "진실과 자비, 둘 아니다"

금산사, 1418주년 개산대재 봉행



백제 법왕 원년(599년) 백제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래 역대 조사들의 중생구제를 위해 진력했던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미륵도량인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가 10월 21일 1418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기념법회에 앞서 금산사 사부대중은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했던 역대 조사 다례재를 조사전과 부도전에서 봉행하고 조사스님들이 추구했던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의 계승과 금산사의 발전을 다짐했다.

이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열린 개산 1418주년 기념법회는 예참, 육법공양, 연혁보고, 염송문 낭독,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법회에는 조실 월주 스님, 일원 스님, 덕산 스님, 화평 스님 등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동영 · 김관영 · 김광수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등 각급 기관장과 불자들 8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참 나를 깨닫고 중생을 구원하는 진실과 자비의 2가지 축으로 귀결된다"면서 "번뇌망상으로 인해 참 나에 대한 진정성과 이웃에 대한 자비행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이웃을 원망하고 배척하는 비불교적 행동이 활개치는 현실을 볼 때 수행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스님은 이어 "진정성과 합일된 자비수행이야말로 개인의 평화는 물론 인류평화를 구현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전거가 한아름 실어다준 행복

빛고을나눔나무, 룸비니 어린이들 자전거 전달



부처님이 태어난 곳인 룸비니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자전거가 전달돼 화제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10월 16~20일 네팔을 방문해 룸비니지역 아이들에게 자전거 100대(1,000만원 상당)와 후원물품 등을 전달했다.〈사진〉

방문단은 3개 초등학교(쉬 자나 죠리 초 25대, 쉬 산티 모덜초 25대, 쉬 세인 커리거 도터다러 25대)와 빈곤층 마을 25대를 전달하고 인근 고아원시설인 에터너리고아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보응 스님은 "광주지역 많은 사찰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기금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룸비니 지역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행복 도구가 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茶는 내면 성찰하는 좋은 도구"

대흥사 · 해남 다인회, 제26회 초의문화제 공동 개최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 10월 20~21일 경내에서 '제26회 초의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남 다인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초의문화제는 '초의 차(茶) 광장으로 나오다'라는 주제로 들차회, 차학술논문발표, 초의상 시상과 차 관련 상품 전시판매, 부채 다포 그리기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20일 전야제서는 해남서초 국악관현악단의 공연과 30여개 차인회가 참여한 들차회가 밤하늘을 밝혔다. 이어 21일 기념식은 초의선사 동상에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과 김정섭 해남다인회장의 헌다로 시작됐다.

월우 스님은 "초의선사는 차는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바라보며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셨다"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차의 정신을 음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대중수행처로 승려노후복지를"

오도암 대중수행처 건립불사 대중공사 열어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가 대중스님들의 기거공간인 '대중수행처' 건립에 나선다.

송광사는 10월 21일 사자루에서 '오도암 대중수행처 건립불사를 위한 대중공사'를 열고, 4명의 주제발표와 모둠토론,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교구 내 스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90여 명의 교구스님들이 참여한 이날 대중공사는 △대중수행처의 건축적 구성요소 제안(한욱빈 불교문화재연구소 건축팀장) △종단 소속 사찰 대중수행처 운영현황(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송광사 대중수행처 시설 개요(조정구 구가도시건축) △송광사 재적승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진화 스님)의 주제발표와 '대중수행처의 필요성' '입방금의 적정성' '수행처 시설에 대한 제안' '1만 명 후원회원 모집방안'에 대한 토론이 5시간동안 진행됐다.

송광사에서 추진하는 '대중수행처'란 승려노후시설을 포함해 일정한 거처가 없는 송광사 교구 내 스님들의 거주공간을 의미하며, 송광사 인근 주암저수지에 있는 오도암에 40동을 건립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욱빈 건축팀장은 조계종의 대중수행시설 사례분석을 통해 "종단에는 화성 용주사 금대원, 화성 자제정사 심우당, 고창 선운사 노후수행마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대중수행처의 공간구성 요소, 필요시설 기준안 등을 사찰법, 노인요양기준 시설에 맞춰 설명했다. 이어 "송광사에서 마련할 대중수행처는 조계종단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승가복지체계 확립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법하게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해제 후 거주처 없다' 69%
소임 만료자는 이보다 많아
대중수행처 필요성 다수 공감

박종학 사무국장은 종단소속 사찰 대중수행처의 운영 현황을 발표하면서 '주거보장의 필요성' '노후주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단 사찰의 대중거주처 운영형태 구분' '시설입주금액 현황' '대중거주처 관리자 및 거주자 등 의견' '대중수행처 규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정구 건축소장은 송광사 대중수행처의 가상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기존 오도암 사찰과 연계해 한실형 15평, 16평형과 원룸형 15평형의 설계도면 및 편의시설 등을 소개했다.



순천 송광사는 10월 21일 오도암 대중수행처 건립을 위한 대중공사를 열고, 대중수행처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진화 스님은 '송광사 재적승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해제나 방학 시에 따로 거처하는 곳이 없다는 답변이 69%에 이르며, 소임 만료 후 거처할 곳이 없다는 스님이 77%에 이른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대중수행처 건립을 위한 재원에 대해 "전체 100억 원의 공사비를 국 · 시도 지원금 60%와 자부담 40%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오도암 대중수행처에 대한 스님들의 6개 분별토론이 이어졌다. 분별토론에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고정적 거처가 없는 현실과 대중수행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입방금에 대해 5000만원을 적정선으로 하고, 47명 스님의 입방의향서를 제출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세미나 발제로 설계도를 공유한 이후 만족한다"는 반응과 "기본적 응급시설을 보완하자"는 요청이 있었다. 특히 자부담 마련의 일환으로 매월 1만원 후원자 1만 명 모집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본불교, 국내 민족종교 말살도 가담"

군산 동국사 · 한일불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니이노 카즈노부 교수 주장
"수운교 진종 대곡파 귀속
실제론 진종 신앙 안 해"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와 한일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1일 동국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18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대기 일본종교의 한반도 침투와 그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권동우 일본불교대 교수가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로 보는 근대신도의 양상', 니이노 카즈노부 일본 동붕대 교수가 '15년 전쟁기의 한국종교', 문혜진 동서대 교수가 '일제 강점기 경성부 남산의 일본종교침투에 관한 고찰', 이치노헤 쇼코 운상사 주지가 '식민지 시대 사사와 나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진출한 일본불교 진종 대곡파가 불교뿐 아니라 천도교, 시천교, 보천교 등의 민족종교도 말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이노 카즈노부 교수는 '15년 전쟁기의 한국종교- 수운교의 일본 진종 대곡파 귀속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니이노 교수에 따르면 일제는 '사찰령(1911)'을 통해 공인된 불교사찰 이외에 천도교, 시천교, 보천교 등 70여개에 이르는 민족종교를 종교유사단체(유사종교)라 칭하며 보안법(1907) 등으로 엄중단속을 받게 되고 동학의 흐름을 이어받은 수운교도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수운교는 1936년 대전경찰서 고등계로부터 '교리는 불교에 가까우므로 불교로 개종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수운교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해산명령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1937년 '미타교'로 개칭하고 진종 대곡파에 귀속된다.

그해 3월 16일 교주 이상룡 등 13명이 교토 동본원사를 방문해 득도하고 진종 대곡파에 귀속하게 되지만 실제 신자들은 형식적으로만 귀속하고 진종을 신앙하지 않았다고 니이노 교수는 주장했다. 그 증거로 광복 때까지 수운교 기도나 포교혐의로 징역형이나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고 6명이 옥사한 것을 제시했다.

진종 대곡파는 경성에 조선승려 양성소를 운영하며 조선불교의 일본화에 적극 나서기도 했는데 수운교의 득도자 중 8명이 이곳 출신이기도 하다. 진종 대곡파는 수운교를 귀속시키며 진제(부처님 가르침)인 불도와 속제인 황도(천황의 가르침)라는 두 가지를 일원화해 불교와 황도를 종파활동의 근간으로 삼게 했다.



군산 동국사 100주년 기념관서 열린 동국사 · 한일불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니이노 교수는 수운교 교주 이상룡이 득도한 흥룡사 휘장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8각으로 된 이 휘장은 가운데 만자를 중심으로 아미타불 48원을 상징하는 선이 표시돼 있다. 니이노 교수는 "이 휘장은 일본 천황의 3가지 보물 중 하나인 '야타노카가미' 거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의 휘장은 대곡파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평에 나선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한국에서 신종교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사찰령에 의해 수운교가 귀속됐다는 주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운교 귀속에는 일제와 일본 진종 대곡파의 조선불교 탄압과 민족정기 말살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운교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연구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임해 밭 죽순
식물성 탄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밭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임해]

탈종공고

• 사찰명 : 성원사
• 주 지 : 법경(성환기)
• 주 소 : 부산시 북구 덕천동 132-13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중앙회 총무원장 법하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으로부터 과분한 이익을 받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을 허물게 되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익되는 일에 빠지지 마라.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행사, 회심곡
(화청), 바라춤,
염불, 49구재,
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6246-6672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웨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해남 땅끝 성도암
절임 배추
선 주문 받습니다.
20kg 1박스 3만원 (택배비 별도)
010-9656-0108
061-533-1639
주지 풍암 연봉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 재의식, 각 예불,
천수바라, 나비무,
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 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동명면)
010-8266-8786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당뇨. 고혈압.
치매예방. 손발저림
치유가능
약손스님 현오
010-5647-3915

불교실전의식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북,태징,요령,목탁)** 및 **바라춤,나비춤,법고(홍고)**를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휴심사교육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4번출구)
010-8588-2816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어깨통증환자를비롯해수많은증상들로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삶을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주 문 : 전화·문자 010-4475-6611 (주소와성명, 염주 번호를 선택하여 주문주세요.)
계 좌 :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보급처 : 캄보디아 국제NGO 자비의 등불 후원사업체(향불원, 등록번호 221-82-72640)

교육학 박사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교육과정 개강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프로그램을 개설.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유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98호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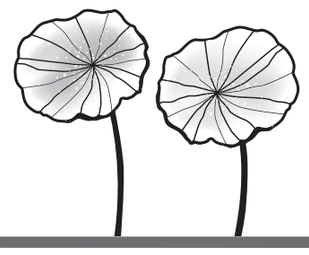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인욕(忍辱)이야말로 가장 높은 고행 긴 고통도 능히 참는 것이 지고의 적멸 다른 중생을 해치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며 중생을 괴롭히는 이는 사문(沙門)이 아니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지리산 하동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단청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20.000㎡
- 산중 사찰. 조용하고 깨끗하며 양명한 곳
- 양도가액 : 8억5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에서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
  대지 328평에 2층 건물
- 1층 명상홀과 요사채 60평
  2층 대웅전 24평, 나무 숲속에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석물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6억 5천

010-4895-20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상가 건물 5층건물에
  반지하 대형사찰 198평
- 시설A급 현재 법회 하고 있고,
  몸만오시면 됨
- 관리비등은 걱정 무! 부동산 사절!
- 은행융자 9,000 안고,
  1억 8천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충주 사찰(급) 안내

- 산밑 사찰. 남향
- 토지 340㎡, 단청법당.산신각.요사채.공양간
- 조용한산사찰. 깨끗하고 운영잘되는 사찰
- 스님사정상 양도. 위치 좋음
- 양도가액 : 3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하철역 인접
- 토지 1,296㎡ (약390평)
- 건물 3동 법당 공양간 상담실 등
- 방 많고 돌탑등 조경이 잘되어있고 주차장이 넓음
- 가액 : 보 2000만, 월150만원
  시설비 8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한우산
  (합천 삼가면 10분거리)
- 절터 570평, 녹차밭(8년생)
  480평=1050평
- 특징 : 조립식 건물 1동
  (주방 1, 방 1, 욕실,
  에어콘, 높은 다락)

010-6239-31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58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와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부지 : 1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2동60평, 기타:산신각,석탑,석등
- 가액 : 4억9천만원
- 특징: 번화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신도구성이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아주용이합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 달발골
- 부지 : 10필지 3,036평
- 용도: 대지 3필지 469평
  전 7필지 2,567평
  법당: 38평, 창고: 15평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12억

010-2480-2918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0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7억 8천만원

010-5923-3388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2억 1,500백만원
  (대출 7,500백 안고 1억 4천)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학동 3길10(2층)
- 총평수 63평, 법당 20평
  접견실 10평, 서실 10평
- 큰방 2개, 공양간,
  화장실 남 · 여 2개
- 가액 : 보증금 3천 월 5십만원
  시설비 약간

010-5342-1459
061-662-513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가락로길 30(중앙통)
- 3층 건물 중 2층 80평
- 삼존불 탱화 완비
- 관리비 및 난방비 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보시고 결정

010-6208-55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 상가 3층 4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모든 시설물,
  집기류 전부 양도

010-3102-532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구, 용암리 49-4번지)
- 종교용지 570평, 터밭 278평
  주차장 44평, 원주-제천 중간 지점
  임법당 32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17평, 청룡 백호 2겹 쌓인 도량 정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3억 5천만원

033-744-3859
011-369-3859 (스님직통)
장난전화 사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 2천(5천만원 빼드림)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부지 : 대지 136평
- 건물 : 46.42평 1층 법당
  2층 거실방 3개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3억8천만원

010-2480-291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각단탱화,법당,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암자터(펜션.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소재
- 대지 300평. 건물 25평
  (조립식). 전답 921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명당터. 토목 조경 완료
- 가액 : 5억

010-3518-395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 법당, 용궁전, 산신각,
  요사채
- 총 1,515㎡ (458평)
- 가액 : 6천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각단탱화,스님방사,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독채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50평
- 1층 : 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2층 : 방 3, 거실
- 도로변대문 3m 연결
  냉난방시설, 얼마전 올수리
  일반주택구조, 동남향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인테리어비)

010-6838-3140

사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 위치:경북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 (백암온천 부근)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이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11
- 부곡시장 상가 2층 35평
- 보증금 2000만, 월세 40만
  (조정가능)
- 시설비는 현장 보시고 결정

010-5522-66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절 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장안읍 명례리
  도로접
- (임야) 1,400평

010-2887-3563
010-5858-17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500평
- 건물:법당 25평, 산신각8평
  요사채1 40평, 요사채2 26평, 기타 8평
- 국내유일의 나전칠기탱화 상단, 신중단
- 지방문화재급:석조미륵마애불상 탱화(약 150년) 100년된 석조지장보살
- 5층석탑:석조금강역사 2구(석조)
- 가액 : 12억

010-9245-82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30평
- 방 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 시내에서 5분거리,
  입지 조건 최고

010-2498-7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큰사찰및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 평당 10만원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 후 결정 주인 직접. 현재 사찰 운영 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 건물,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 거리

010-3879-2544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 770-2(허)가 06-2231
공신공인중개사 "급 매물" 안내

- 위치 : 부산시 15분 거리 근교..
  양산 명곡 마을에 위치한 사찰
- 대지 200평, 건물 120평(대웅전, 요사채, 불두) 마당, 일주문
- 주위 대지시세 약 3백만원,
- 등기부 매입시 8억8천만원 등재
- 급한사정 : 8억 3천에 양도

010-3570-0025

사 찰 안 내

- 위치 : 팔달 전철역에서
  5분
- 대지 200 평
- 법당 20 평
- 산신각 20평
- 몽땅 1억 4천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2500가구 아파트 상가
- 평수 30평, 2층건물중 2층
- 시설: 원목수미단,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 시설완벽, 모든집기 포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779-99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52평
- 한옥한채(법당),
  부속건물 2동, 텃밭 있으며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1억 8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010-9338-1755 로
문의바랍니다.

울산 큰 포교원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습니다
- 전국에서 포교원 하기
  제일 좋은 지역
- 3층 건물 2층 3층 각 60평
  (옥상 독으로 사용)
- 가액:보증금 5천 월세 9십만원
- 시설비 이사비용만 받겠음

※ 포교원 장소로서는 최고 위치임

010-3858-0306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바다전망 좋음
- 105평(실평 76). 3층 중 3층(신축건물)
- 엘리베이트 2대, 주차 50대
- 법당 5존불 , 탱화
- 종무소, 공양정, 원목락카, 수입원목설비 방3, 욕실3, 샤워부스3, 친견실
- 부산 기장 바다 전망.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3832-6626
010-2065-3338





Asian Buddhist Community (2017)
아시아 불교연합 발족 (아시아 10개국)

2017년 10월 12 ~ 13일, 미얀마 양곤 깔라윅 펠리스 연회장

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

아시아 10개국 불교대표 동참. 한국대표로 (사)세계불교법왕청 주요임원 참석하여 아시아 10개국 불교지도자들과 행사 진행



◇미얀마 – 우 꾸마라(세계불교법왕청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종정), ◇한국 – 목탁스님(세계불교법왕청 사무총장), ◇태국 – 파라솜 추라본(태국 승가대학 부총장), ◇인도네시아 – 부디 우타노 스님, ◇싱가포르 – 챠운 쉬엔 스님, ◇스리랑카 – 찬다와리말라 스님, ◇베트남 – 나웬 안 타운 스님.











세계 불교를 향한 첫 결실로
아시아 불교 10개국 모여 '아시아 불교 연합 (ABC)' 발족
성공적인 '아시아불교연합(ABC)'을 위한 세부 규칙 제정 및 자유토론 진행

세계 불교도를 하나로 모아 내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7년 여간 한 길을 걸어 온 (사)세계불교법왕청이 드디어 첫 결실을 맺는 큰 행사를 가졌다. 10월 12, 13일 양일간 미얀마 양곤의 깔라윅 펠리스 연회장에서 진행된 'Asian Buddhist Community (2017) 아시아 불교연합' 행사는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주도해 온 법왕청 한국정부(사무총장 목탁)와 미얀마 불교수호협회(회장 우 킨쉐이, 미얀마)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의 그 첫 번째 행보로 아시아 불교도의 공동연합체를 구성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 등 10개국 불교대표와 각국 스님 100여명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 행사에는 우 꾸마라 세계불교법왕청의 법왕을 비롯하여 행사를 주도한 한국대표 목탁스님, 미얀마수호협회 회장 우 켄쉐이, 에이우디 발라 양곤 승가회 회장, 파라솜 추라본 태국 승가대학교 부총장, 트라 아웅 코 미얀마 종교성 장관, 표민 테인 양곤 도지사 등이 주요인사로 참석하여 끝까지 행사를 함께 했다.

12일 오전 8시에 시작된 행사는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가 보이는 깐도지 호수에 마련된 야외 행사장에서 전체 기념 촬영과 환영 전통행사를 마치고 깔라윅 펠리스까지 700m를 행진하여 행사장인 연회장에 도착하여 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장까지 행진하는 길에는 수많은 미얀마 불교도가 환영의 인사로 함께하며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으며, 13일 행사 또한 전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됐다.

트라아웅 코 미얀마 종교성 장관과 미얀마승가협회 바단타 아까다마 스님의 촛불 공양을 시작으로 각국 대표 스님들의 아시아불교연합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각국 대표 스님들은 사전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아시아불교연합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세계 불교발전과 포교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하는 내용의 연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어 각국 스님들은 성공적인 '아시아불교연합'을 위해 법령 제정과, 규칙준수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자유 토론을 이어갔다. 자유 토론을 끝으로 미얀마불교수호협회 우 킨쉐이 박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세계불교를 위한 초석이 되는 이 모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발전적 연합체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논의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불교연합의 이번 개막식은 사전 일년여 간 세계불교법왕청 한국중앙정부와 미얀마불교수호협회가 각국 불교대표들을 예방하여 사전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해 왔으며, 처음 구성된 12개국에서 일본과 중국이 일정상 불참을 통보하여 10여개국으로 1차 개막식을 진행한 것으로 향후 일본과 중국 또한 추가 참여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이번행사를 주도했던 미얀마불교수호협회와 미얀마연방승가회가 아시아불교연합에 대한 법령 및 규칙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된 몇몇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통해 긍정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최종 정리했다.

미얀마 승가는 현재 7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대를 통해 연방승가 대표종정제를 운영하며 사안에 대한 원칙적 만장일치를 표방하고 있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목탁 스님 대표연설 (세계불교법왕청 사무총장)



지금까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진정 화합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계불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불제자로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가 둘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큰스님께서 마음을 모아 불법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 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온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킨쉐이 박사에게 진정을 다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입만 열면 붓다를 외치면서 불교를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불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각국 지도자가 한마음 되어 함께하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불제자로 대승과 상좌부는 둘이 아닙니다. 가슴을 열고 세계불교가 하나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대표단 아시아불교연합 행사 참가 후 성지순례

한국 측은 세계불교법왕청 한국중앙정부 각료단 혜승스님(대선불교조계종 종정)을 비롯하여 승가 11명과 불교지도자협회 소속 재가불자 9명 등 총 20명이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아시아불교연합' 개막식을 마치고 미얀마 양곤 150km에 위치한 짜익티오 성 사원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이어 짜익티오 불탑에서 기도정근을 진행했다. 짜익티오 불탑은 미얀마 3대 불교성지로 부처님 불발이 모셔진 곳으로 미얀마 불교인들의 성지로 추앙 받고 있는 곳이다. 기도정근을 마친 일행은 미얀마 북부 헤호의 인레호수로 이동하여 파웅도우 사원과 인근 나패정 사원을 참배하고 고원지대인 샨주로 이동하여 인따야지역의 쉐우민 동굴사원을 방문했다. 쉐우민 동굴사원은 해발 1130m의 쉐우민 산 중턱에 위치한 동굴사원으로 길이 150m, 높이15m 동굴에 각국 불상이 8,094개가 모셔져 있어 참배객들의 순례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한국대표단은 쉐우민 동굴사원과 인근 삔따야 지역의 꽁롱사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10〉 관대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 '베풂'



몇 년 전, 태국 산간 지역의 수행 전통을 따르던 한 스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수행의 단계로 처음에는 베풂, 다음에는 규범 그러고 나서야 수행이나 위빠사나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행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규범,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마치 부록처럼 베풂에 대한 약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풂이 바로 길의 시작입니다. 붓다도 항상 새로운 수행자들에게 다나(布施), 즉 베풂의 실천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전적인 불교 가르침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기꺼이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의 수행을 위한 첫 발판은 베풂과 규범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세속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이러한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풂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풂의 특징은 놓아 버리거나 양도하는 마음의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놓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고, 관대하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원천에서 솟아납니다. 베풂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그러한 덕목들에 마음을 열어 놓는 일입니다. 이러한 덕목에 의해서 우리는 심오한 자유의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지혜에 도달한 상태가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붓다는 베푸는 마음 없이 진정한 구도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열 가지 덕목의 완성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덕목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바로 베푸는 일에서 시작하고, 붓다도 이것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베풂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쁘고 순수하며 막힘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즐거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질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주는 마음은 표현될 때마다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때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도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베풀었던 일을 기억하면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베풀 때 생기는 덕목들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는 베풂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사회적인 이로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유명해지기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지 않았더라도, 관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관대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고 사랑하게 하며 기쁘게 합니다.

붓다는 관대한 사람은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줄 때 생기는 기쁨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배울 때, 용기와 힘 그리고 밝은 느낌이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편안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우리 마음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들의 신뢰는 아주 강해집니다.

주는 일은 정신적인 이익도 줍니다.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 행위에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을 시발점으로 많은 정신적인 길들을 설명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 그리고 집착과 증오와 무지를 내려놓는 일은 베풂에서 시작됩니다. 주는 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듯이 만일 여러분들도 베풂의 힘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지 않고서는 한 끼의 음식조차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음식을 나누는 일은 특히 주는 행위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힘, 건강, 아름다움, 맑은 마음, 심지어 생명을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음식을 제공할 때, 정신적인 길의 많은 부분이 채워진다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네 가지 고귀한 마음가짐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메따, 자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받는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연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받는 사람이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나누면 우리는 함께 기뻐함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때 기뻐하며, 그 행복이 더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는 행위에는 평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놓아 버리기 때문이며, 기꺼이 그 음식 없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독특한 덕목들이 바로 음식 한 번을 주는 행위에 모두 깃들어 있습니다.

베풂은 수행의 첫 시작
덕목들에 마음 여는 일
관대할 때 두려움 없어
수행 통해 익숙해져야

베풂에 특정 기준은 없다

붓다는 스스로 자신의 선한 점을 떠올리고, 베푸는 행위 자체를 즐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쁜 말이나 행동을 표출하며 사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이 책 앞머리의 자애 수행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었던 자신의 선행을 떠올려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습이 어려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무척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흔쾌히 주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다락방에 놓여 있는 어떤 물건을 생각해 내는 일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베풂을 실천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일은 우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행한 베풂을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아만심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는 선택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붙잡지 않고 내어 줍니다. 쌓아 놓지 않고 포기합니다. 집착하기보다 놓아 버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면 선량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풂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베풉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베풉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없다면 베풂의 경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결과에 집착하거나 보답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베푼다면, 주고받는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에 자유를 줄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역할 구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종속 개념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베풀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글쎄, 이 사람은 나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다니 정말로 바보 같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주는 바로 그 순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모든 태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베푸는 행동을 자주 반복해서 수행하면 그 힘은 아주 강해집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활동한다는 것은 내면에서 놓아 버리는 마음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즉,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실제로 베풂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눔을 실천하면 명상 수행에 영향을 주며, 명상 수행 또한 나눔의 실천에 영향을 줍니다. 베풂은 명상 수행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듭니다. 베푸는 행위를 하면서 내적인 행복과 여유로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현상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놓아 버릴 줄 아는 유연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내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는 일과 관련이 깊습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나누어 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하려는 집착을 멈추기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기를 어려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가난한 사람 중에 베풀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줍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음을 아는 한 언제나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베풂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거듭거듭 베풂을 수행하며 성장합니다. 주는 것의 힘이 큰 폭포수처럼 될 때까지, 주는 일이 아주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침내 우리 자신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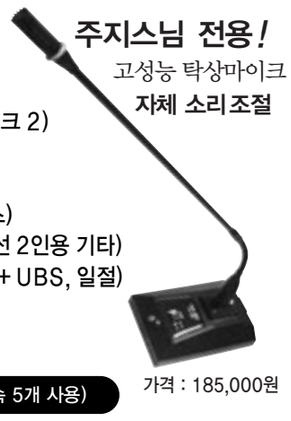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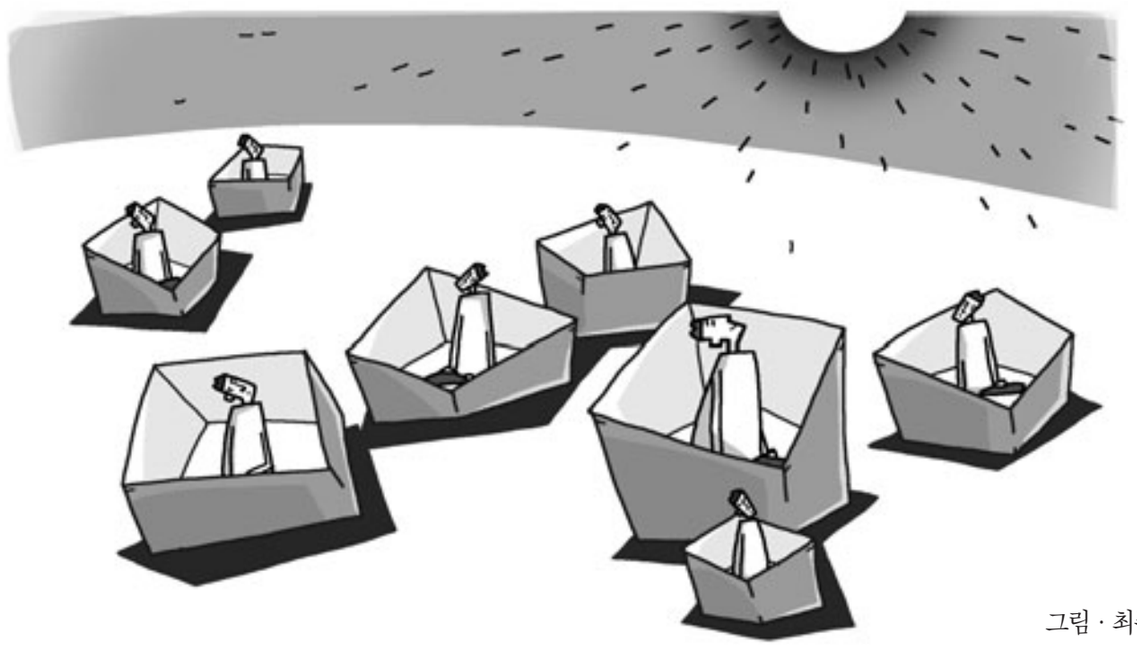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공생 공체 공식 공용 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


그림 · 최주현

진주에서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합하여 한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여기 회장님으로부터 부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각자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든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같이 따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한생각 내기가 그렇게 어렵단 얘깁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쁘게 들어오는 걸 좋게 생각을 돌려서 그 자리에 일임하라고 했습니다. 몸속의 의식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인데,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업보성 윤회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없어지는 까닭에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한 까닭에 부처는 편안하다 이 소립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은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작용을 잘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하여튼 사람이 마음 내는 대로 의식들은 그 몸속에서 모두 그대로 따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 덩어리는 심력만 배출할 뿐, 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선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태양열도 그렇지만 전력도 우리가 크게 끌어 쓰려면 크게 끌어 쓰고 작게 끌어 쓰려면 작게 끌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다 주어지듯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에너지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그 에너지를 빼 쓴다면 그대로 그냥 배출이 되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선으로 나가는 데도 또 그것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한마음에 일체를 다스려 주는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하는 대로 입력이 되고 선하게 하면 선하게 하는 대로 입력이 자동적으로 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자기가 현실에 사는 거를 가만히 지켜본다면 미래에 올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죄를 안 짓는데도 왜 이렇게 고가 많고 병고가 많고 애고가 많은가.' 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네가 과거에 한 거를 대충 짐작하리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가만히 본다면 미래에 또 어떻게 올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교가 중요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수십억의 의식들이 모두 나가서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도 혹성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요. 그러면 몸에도 대기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몸속의 의식들이 다 나가서 작용들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악연을 가져오게 돼 있고, 세균성을 끌어들여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영계성을 끌어들여서 정신병자로 만들 수도 있고, 유전성을 끌어들여서 그냥 복잡하게 2대 3대가 가도록 연방 같은 병 증세 또는 애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꽁지에 꽁지를 물고 일어나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권에서 모든 것을 통신하는, 들여보낼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 통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한번 잘 쓰면 두뇌로 배출이 돼서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내 몸뚱이 하나가 움죽거리는 거를 본다면 전체 우주가 움죽거리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이 49년을 설하시며 가르치실 때도 그러셨지만 본래 불교는 생활 자체 그대로입니다. 목탁 두드리고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하나도 빼놓는 게 없이 전체가 다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49년을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는 "너희가 마음을 깨달아서 본다면 내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느니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일체 모든 생명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렇기에 한도량이요, 모두 각자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에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진리이니라." 그러셨던 겁니다.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 하나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불(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이에요, 불! 또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정신계나 물질계가 한데 합쳐서 작용하면서 돌아가고 통신이 되고 모두 교류하고 돌아가는, 말하면서 돌아가고 생각이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이러는 것이 교(敎)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이며 공체며 공식하고 공용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것만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활의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생이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되 (법상을 짚으시며) 이런 거 하나도 버림이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낱낱이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까 이런 것도 돌아가고 있죠. 모두가, 하나도 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그 자체가 불교라 이겁니다.

종교가 많지만 그건 모두 이름일 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내 사찰 네 사찰 하고 싸우고들 야단들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넓게 생각을 못해서일 겁니다. 계정혜(戒定慧)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계율과 질서를 참으로 지키려면, 즉 잘못되는 걸 다스리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모두 정에다가 같이 놔라 이겁니다.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있는 것도 다 정에다 놔서 같이 한마음으로 그거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자유인의 길이라는 얘깁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그냥 여여하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낮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으니 어느 거 하나 높지 않은 게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내 남편이 높고 내 자식이 높듯이, 또 바다에서 보면 뱃사공이 높고,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높고, 정치하는 데 가면 정치인이 높고, 모두가 하나도 높지 않은 게 없죠? 산도 높은 게 있으니까 낮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니까 높다고 하지 낮은 게 없는데 어떻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평등한 진리며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입니다.

외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항상 기복으로 타의에서, 꼭 상대를 놓고 믿어요. 상대를 놓고 찾아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대 성인들,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가설되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계를 알고 우주의 섭류를 아느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딨고 종교가 어딨겠느냐? 너부터 알라." 했는데 모두들 상대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고 부처를 찾고 온통 야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도 "당신네가 상대를 놓고 비는 이상 노예로밖에는 살 수 없다. 가르치는 사람도 노예요, 배우는 사람도 노예일 뿐이지 자기 소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 말입니다. 모두들 미거한 탓에 그렇게 의인을 죽여야만 했던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형상을 믿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겠습니까? 또 이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허공을 믿겠습니까? 뭘 믿어야만 되죠? 어느 분이 한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내 주먹만 믿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것도 좋지만 내 주먹을 믿는다면 펼 줄도 알고 쥘 줄도 알아야만이 진짜 넓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먹을 쥐고선 펼 줄

☞ A18면으로 계속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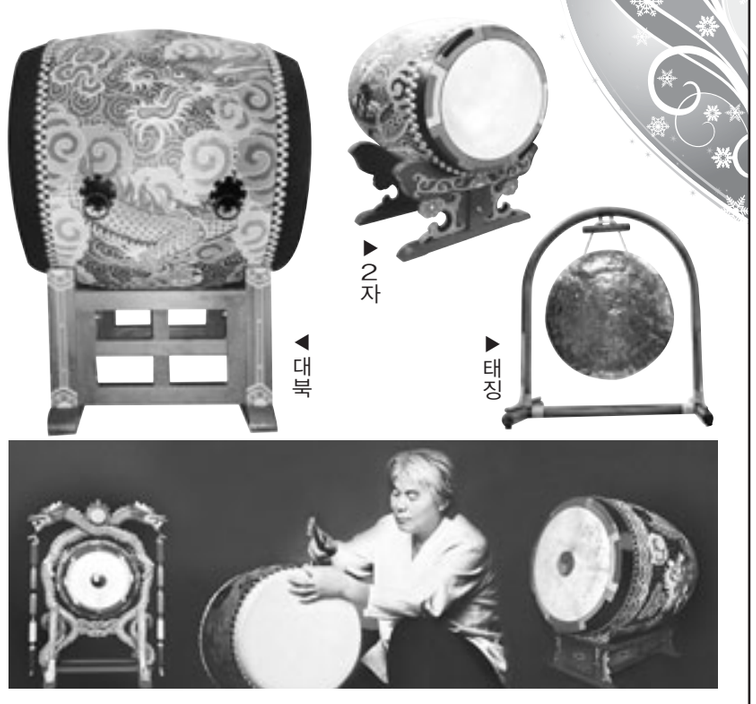
 #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참 불교방송 HYUNDAI 현대미디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 2자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내 한마음에 우주가 직결돼 있고 이 세상이 가설돼 있다!

☞ A17면에서 계속

모른다면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생이며 공용이며 공체로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시공을 초월한 이 자체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내 한마음에 우주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이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혜가 풍부해지고 물리가 터집니다. "나를 믿되 나가 아닌 나를, 즉 주인공을 믿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일임해라.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거기서만이 이끌어 가고 거기서만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땅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져도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든 걸 일임하고 돌아간다면 안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는 작용을 해 주고 밖으로 약을 먹더라도 주인공과 둘 아니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밥도 약입니다. 밥도 약이에요! 평소에 사과나 어떤 과일을 먹는 것도 약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약 아닌 게 없죠.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불교라는 자체가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기 때문에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고 찾을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기도를 하러 갑네 하고 가정을 비워 놓고, 또는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자식을 굶주리게 하고, 음식을 가리면서까지 잘되게 한다고 기도를 하러 석 달 열흘을 가지를 않나 일주일을 가지 않나. 그러나 이것이 모두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건이 나쁜 일이지요. 집안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잘되겠다고 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앉아 있는 자리에 부처든지 주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법당에도 오시면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 부처가 있는 거죠. 여기 스님네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사찰이든지 어느 교회나 성당이든지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주님도 없어요! 허허허…. 그 뜻을 잘 알아내 보십시오. 자기만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나도 전에 고해 성사까지도 해 봤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하여튼 불교라는 게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겁니다. 그러니 일체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만 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 세세생생 쳇바퀴 돌듯 하면서 옷이 더러우면 벗어 버리고 또 새 옷 입고 이러듯이, 우리 몸뚱이는 한 철 캠핑 나와서 놀다 가는데 그냥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또 주어지죠. 주어지면 그걸로 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당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그걸 실감 못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 즉 말하자면 무명이 씌워집니다. 개같이 산다면 개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짐승같이 산다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개로 됐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바로 천당입니다. 무슨 지옥이 따로 있어서 가둬 놓는 데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찰나에 그냥 사람으로 됐다가, 한 찰나에 그냥 딴 모습을 쓰고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상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곳은 중천세계라고 볼 수 있죠. 상천세계로, 대천세계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데에 달렸다 이겁니다.

> 나를 믿되 나가 아닌 나를, 즉 주인공을 믿어라.
> 그리고 거기다가 일임해라.
>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공부 할 때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이요, 미래심도 현재심이다 이겁니다. 그걸 일일이 따진다면 헛갈려서 안 되겠지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삼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오늘입니다. 삼천 년 후도 오늘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허, 이해가 그렇게 안 가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어저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딪치죠. 오늘 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 오늘이요. 그래서 삼천 년 전 오늘이나 삼천 년 후 오늘이나 오늘 일심으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 뭐고 물질세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정신세계고, 설계도가 나왔을 때가 바로 물질계입니다. 그럼 정신계와 물질계가 종합해서 집 한 채가 올라갑니다. 허허허…. 여러분이 그렇게 여여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예가 없어요. 달력에 써 놓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읽어 보세요.

수억겁을 거쳐서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하면서 나투면서 화하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온 것도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키며 온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합하고 거기에 태어날 자기 영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삼합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린애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형성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또 붙습니다, 영혼에. 업식이 붙어서 형성된 인체 내부에 모든 회사가 들어섭니다. 간장 공장, 심장 공장, 콩팥 공장, 척수 척추 공장, 대장 소장 공장 이 모든 공장이 쫙 몸뚱이에 들어서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모두 부처님이시죠. 허허허…. 그리고 다닐 수가 있죠. 말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식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런 공장의 바로 공장장들이죠.

그러니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대로 하나로 돼 주고, 또 내 마음이 그리로 든다면 그냥 한마음이 돼서 부처고요. 그래서 자(子)와 부(父)가 서로 상봉을 해야만이, 과거에 살던 내 조상과 지금 현재의 내가 상봉을 해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린애를 낳은 셈이다 이겁니다. 육체적인 어린애 말고 정신적인 어린애로 태어났다. 정신의 어린애로 태어났다면 그게 또 성장하도록 길러야 되겠죠? 기르는데 체가 없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털 먹이지도 말고 길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먹이고 마음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 다스림이 바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키워서 물질계를 모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길러서 창조를 하고 이러는 게 즉 생활과학입니다. 부처님이 딴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하나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움죽거리고 돌아가느니라. 이 마음에 전체가 다 같이 호흡하면서 돌아가느니라." 본래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쓰여지게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으며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을 몰라요. 어떻습니까? 한번 고맙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아, 참 고맙다! 바람, 공기야, 참 고맙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줘서 참 고맙다! 불아, 고맙다! 흙아, 고맙다!' 해 봤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한번 고맙다고 해 봤습니까? 허허허….

하여튼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작용하게 하느냐를 알아야지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100%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합해져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자유스럽질 못해요.

컴컴하다면 불을 켜서 밝은 데서 살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똥이 마려우면 똥 누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세요, 자유스럽게!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때 똥을 누면 시원하죠? 그 똥 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면서 살아나가는 데에 그저 이것저것 닥쳐오고 답답하고 그럴 땐 똥 못 누는 거나 똑같아요. 허허허…. 그러니까 변비 생겨서 똥 못 누는 거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답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시원한 삶이죠. 그러니 모두 여러분의 한마음에 달려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네 가지 재료가 주어져 있으니 본래 있는 거 가지고 바로 중용을 하실 겁니다. 모두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의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내가 박사님들더러 그럽니다. 박사님들께서 연구를 해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병자는 또 딴 병으로 바꿔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업식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분들은 또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얽혀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병 이름을 알고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병 이름은 모두 여러분이 지어 놓은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름들을 가지고 야단법석이죠.

그래서 그 박사님들더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해도 35%나 40%, 45%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누가 충당을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거를 모르고 어디로 갈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 못하고 자유스럽게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병원에선들 어떡합니까? 업보성으로 오고 영계성으로 오고, 세균성으로 오고 유전성으로 오고 아, 이러는 놈의 거를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해요?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안 했다면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못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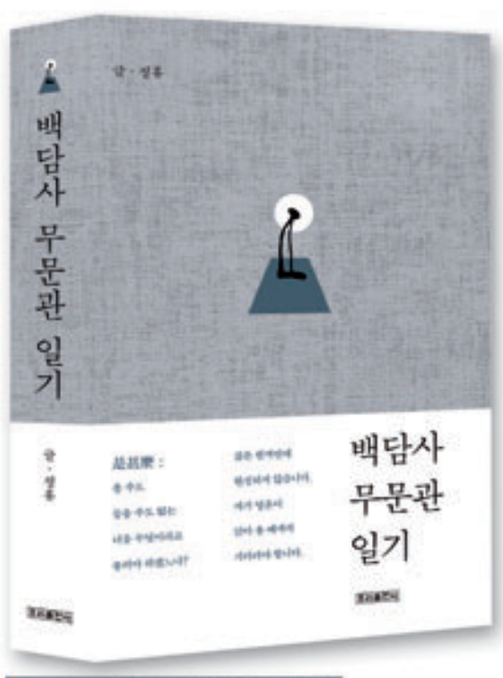
그러니 이 공부를 어느 분이고 모두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조상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지금 자녀들에게 햇빛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재산을 모아서 주려고 하는데 재산을 모아 주기보다도 이 마음공부를 전달해서 뿌리가 싱싱하다면 나무도 싱싱하고 가지도 싱싱하고 잎새도 싱싱해서 열매가 굵고 아주 맛있게 열리고, 제 나무에서 실과는 익어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안겨 줄 양으로 그냥, 자기가 병이 드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한테 잘살게 해 줘야지!' 하는 소망만 가지고 뛰는 겁니다. 하기야 사는 날까지는 꼭 살겠죠. 그렇지만 사는 날까지 살더라도 자유스럽게 살고 자유스럽게 가야죠. 옷이 더러우면 '빨아 입어야겠다!' 하고 벗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목탁을 두들기고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증명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두 방편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편이란다고 또 거짓으로 알진 마세요.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우리가 켤 줄 알아야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이! 저놈은 얄미워." 하는 소리도 나오고 "조놈은 아주 잘하는데…."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 화면과 같고 텔레비전 몸체와 같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선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두뇌에,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켤 줄 알아야 켜지 몸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1월 29일 진주 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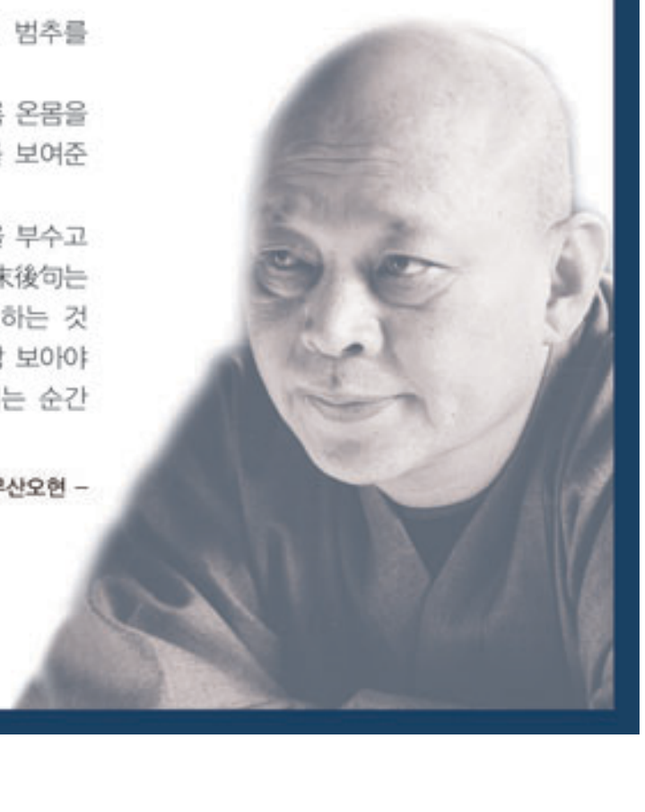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錄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 불자 세상보기 |

‘효율적 이타주의자’ 가 됩시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어금니 아빠’ 사건에 국민 공분
기부금으로 호화로운 생활 물의
선한 의지의 기부 줄어들까 우려

전문가 “믿고 주는 게 훨씬 낫다”
‘무주상보시’ 란 불교 가르침 유사

세계적인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될 것” 주문
머리로 하는 기부가 진정한 기부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가 나중에 속은 것을 알면 한동안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얼마 전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의 일종인 ‘거대 백악종’을 앓던 딸의 사연으로 유명해진 이 모 씨가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방송과 SNS를 통해 딸의 수술비가 없다고 호소하여 약 12억 8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양면성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비싼 돈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는가 하면 고가의 혈통견을 분양받아 되파는 등 호화 취미생활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그가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된 이유는 자신도 여러 차례의 백악종 수술과정에서 잇몸을 모두 긁어내 달랑 어금니 하나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부녀가 시청자들로부터 동정과 관심을 끌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기부자들의 선행의지를 꺾고 더 나아가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개인의 지속적 실천과 함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사한 사건을 빌미로 ‘기부해도 엉뚱한 사람들의 배나 불려줄 뿐’이라는 방어적 시각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방식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기부에 관한 한 ‘믿고 주는 것이 안 믿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이는 마치 불교 윤리의 ‘무주상보시’를 연상시킨다. 세계적 실천윤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피터 싱어에 의하면 세상에는 ‘기부를 해야 할 이유가 기부를 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를 압도한다. 그의 최근 저서 〈효율적 이타주의자(The Most Good You Can Do)〉는 이러한 싱어의 문제의식과 이에 상응하는 윤리적 행위전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피터 싱어의 기본입장은 공리주의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가 추구하는 행위의 목적은 나의 행위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가능한 적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를 기부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싱어는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제안한다. 기부행위에도 인간적 열정보다는 윤리적 냉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베푼 나의 선의가 고작 값싼 동정심으로 치부되고 말았다면 향후 나의 기부행위는 더욱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리주의자답게 ‘가슴’보다는 ‘머리’로 하는 기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부가 될 수 있음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자신은 이런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볼 것을 권유한다. 우리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기부 전략이라고 본다.

다시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되돌아가 생각해보자. 우리는 기부금을 유용한 단체나 개인에게 실망한 나머지 당장 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피터 싱어의 대답이다.

기부의 중단보다는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한 기부자 즉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교훈은 우리의 기부행위가 윤리적 타산과정을 동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도덕적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자.

社說

국토부, ‘제2의 알고가 사태’ 만드나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항상 만나게 되는 이정표는 지역 명찰로 가는 표지판이다. 합천하면 해인사, 속리산하면 법주사, 김천하면 직지사가 연상되듯이 지역 문화에서 사찰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사찰로 가는 길을 알려주던 표지판이 없어질 상황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한국의 명찰(名刹)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현재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사적지 등을 명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인 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는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

또한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소위 위락시설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지만, 공공재며 문화재인 사찰을 표지 않는 것은 해당 부처의 몰지각한 문화재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불교계에 책임도 없지 않다. 10년 전 지침 개정이 이뤄졌을 때 살폈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전혀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조계종에서 공문으로 항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역시 지침 개정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토부는 2008년 ‘알고가’ 사태를 통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제2의 알고가 사태’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신계사 복원 10주년에 부쳐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 10주년을 맞았다. 금강산 신계사는 역사적으로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소실됐다. 이후 2004~2007년 남한의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복원 불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내금강 장안사 복원까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신계사는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단절된 상황은 현재까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경색 국면에서 신계사는 남북 불교를 넘어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사찰을 복원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10월 2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내년에는 남북 교류의 길이 열릴 것”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불교계는 지금부터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한다. 신계사 복원을 뒤이을 새 사업 구상에 나서야한다”는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는 내금강의 불교 유적들의 보존·복원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내금강에는 장안사지, 마하연사지, 표훈사 등 역사적 명찰들이 즐비하다. 이들 사찰 복원과 활용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관심이 컸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신계사 10주년은 남과 북이 따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다시 교류가 재개돼 남북 불교가 함께 만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했으면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기대해 본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1030세대 ‘맞춤형 포교’ 필요

불자 인구 감소와 함께 청소년 세대들이 불교를 외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는 최근 108청년회를 구성했다. 청년회가 있지만 보다 젊은 1020세대의 청년들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봉은사가 왜 기존 청년회 외에 새로운 청년회를 발족했을까.

그 답은 자명하다. 청년회 조직 구성이 다소 장년들로 구성되며 청년들만의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1020세대들로 새로운 청년회를 구성하고 이 연령대 나이에 맞는 포교를 새롭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다. 아무리 위 세대에서 청소년세대를 이해하려 해도, 청소년세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 세대다.

많은 청년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사찰에서는 기존 청소년 불자들마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청년회가 잘 조직된 교회나 일부 대형사찰을 제외하고는 정작 불자로서 신행활동을 하려고 해도, 비슷한 나이대의 도반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존의 청년불자 조직들이 고령화되고, 또 인원이 줄다보니 새롭게 유입된 청년불자들에 과다한 관심, 업무가 몰렸다. 이는 오히려 신심과 원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만 있었다.

얼마 전 한 사찰에 취재를 갔다 만난 20대 남성불자는 “사찰에서 또래를 만날 수 없어 아쉽다”며 “특히 선배 불자들의 조언 아닌 조언으로 오히려 힘들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청년불자들이 워낙 적다보니 법회 등에 참여해도 눈에 띄고, 어른들의 관심이 몰린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혼밥·혼술·혼놀’(혼자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기)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됐다. 일부 매장에서는 직원들의 조언 없이 혼자 쇼핑을 하는 의사표현이 명시된 바구니를 들고 쇼핑한다. 회피, 은둔까지는 아니지만, 개인화된 경향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신행’하면 곧잘 ‘법회’를 떠올렸다. 이에 따라 청년불자들의 신행도 곧 사찰에서 청년불자들이 법회를 보는 것으로 고정화됐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개인화 되어가는 청년층에 맞춰 개인화된 불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혼자서도 사찰에 쉽게 찾을 수 있고, 또는 굳이 사찰에 오지 않더라도 불교를 접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반야톡’을 낸 권진영 법사는 청소년 포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종립 중학교에서 교법사로 있는 그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 법사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에 나오는 부분을 통해 상담하고 있다. 효과는 상당했다.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 중 절반이 종립대학, 그리고 불교학과에 진학한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청소년 포교에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로 불교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불자 중 10대는 10년 사이에 81만여 명이 감소했으며, 20대도 80만명이 넘게 감소했다. 10대와 20대의 감소가 사실상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0세부터 10대까지의 감소폭까지 감안하면 불교의 미래는 어둡다. 곧 청소년 포교에 불교 미래 향방이 달려있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고통을 버리는 수행법 …

진귀 手印 修行法 진귀수인수행법

강좌안내

■ 3개월 과정 (총 10회 강좌/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개 강 일: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종 강 일 :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 강 사 : 진귀장자
- 장 소 : 깨달음산문 (대구시 소재)
- 수 강 생 : 33명 선착순 접수
- 수 강 료 : 별도문의
- 신청접수 : 1899-9532

※산문강의실이 좁은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33분만 모십니다.



깨달음 山門 화엄세계회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문의 1899-9532



비구 스님이 바느질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가사불사에 매진하는 비구 스님도 있어야 한다는 원력하나로 주변의 시선을 극복해왔다. 고려시대 가사를 복원해 지은 가사를 배경으로 미소 짓는 스님의 표정에서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가사 한땀 한땀 정성이, 바로 수행”

산문 밖의 禪 양산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

불화 · 가사 편수의 대가

2009년 불교미술대전 대상

가사연구 25년 외길 걸어

1가사에 100일 공력 다해

“가사는 복짓는 밭입니다”

은사 스님 보은이 원동력

1978년 성수 스님 인연

“살아있는 부처 그려보라”

전통가마 ‘금어연’ 제작

가마연 통한 불교문화 알려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그림을 그렸다. 바느질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가사(袈裟)를 지었다. 음식을 정식으로 배운 적 없지만 산에서 나는 재료로 뚝딱 요리를 만들어 냈다. 불모(佛母)이자 가사원의 편수(片手, 불사의 책임자), 그리고 연(輦, 사찰에서 불상을 옮길 때 쓰는 가마) 제작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경남 양산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의 이야기이다.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미술 분야에서 각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자문이 필요하면 명천 스님을 찾는다.

10월 16일 통도사 말사 미타암에서 만난 명천 스님은 바느질 이야기를 꺼내자 “바느질 하는 비구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쑥스럽다”며 빙긋 웃었다. 어떻게 불교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스님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라며 단순하게 답을 했다.

“학교에서 정기적인 미술 시간 외 예술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었다”는 말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는 이런 것 일까?란 생각마저 들었다. 2009년 불교미술대전에서 명천 스님은 ‘복전의’(가사의 또 다른 말)로 대상을 받고 각종 전시와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전통불교문화 복원에 스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일단 신뢰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타고난 미적 감각과 더불어 스님의 꼼꼼한 정성이 깃들어 탄생한 작품이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스님은 불교 외 다른 주제는 관심이 생기지도 눈길도 안 간다고 했다. 불교가 너무 좋아 16살 때부터 행자 생활을 했던 스님이었다. 오랫동안 시봉했던 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1923년~2012년)의 한마디 “살아 있는 부처를 그리면 내가 업어주지”를 마음속에 품고 부처를 향한 구도의 길을 오늘도 뚜벅 뚜벅 걸어 갈 뿐이라고 했다.

부처님 향한 정성, 작품 원동력!

양산 미타암 다실에 불자들이 방문했다. 양산시 고위 공무원들의 부인들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명천 스님께 인사하기 위해서였다. 가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작품을 펼쳐 보이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부인들은 손으로 가사를 만져보며 손수 바느질한 정성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비구 스님이 가사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님은 가사에 대한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비구 스님이 바느질을 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 아니었지만 수행의 일환으로 삼았다. 가사는 스님들의 의복이고 법복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참선을 해서 득도를 해 중생구제를 하던지, 경전을 보고 설법교화를 한다던지와 동떨어 졌지만 이 분야는 누가해도 돼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가졌습니다.”

시작은 했으니 해야 한다는 마음 뿐이었다.

“가사를 또 다른 말로 ‘복전의(福田衣)’라고 합니다. 복 밭이란 의미이지요. 밭에 물길이 난 모양처럼 생겼기도 했지만 숨은 의미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전해 자신과 듣는 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천과 천을 연결하기 위해 또 다른 천을 덧대고 바느질을 합니다. 덧댄 천이 마치 밭고랑처럼 보이는데 그 연결 부위 안에는 물길이 지나가듯 구멍이 연결되어 통과 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막힌 부분이 있으면 파가사라고 해서 버리지요.”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었다. 수차례 손을 찌르고, 피가 나고, 화도 났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이라 생각하고 가사 불사를 진행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가사를 뒤집어 보니 바느질 선이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다. 바느질 선은 곧고 깨끗했다. 가사 가장 자리에는 실로 만든 작은 매듭이 오돌토돌 만져졌다.

“세발상침이라고도 하고 개미처럼 작은 매듭이라서 개미상침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사 가장 자리를 만져보면 손으로 미세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연꽃 봉오리를 상징하고 가사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가사 하나를 짓는데 며칠 정도 걸리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가사 불사에만 집중하면 보통 100일 즈음 걸린다”고 답했다. 왜 가사를 짓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전통을 후대에 전하고 싶어서”라고 답했지만 “좋아서…그 외엔 이유가 없어요”라고 들렸다.

“전통 가사원을 현재 조계종에서 운영합니다. 그 전에는 손으로 지었죠. 가사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를 한지 25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는 전란으로 전통 유물을 잃기도 했지만 스님은 입적을 하면 다비를 합니다. 일반 사가에서는 수의를 제작해 입지만 스님들은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평소 입었던 옷과 가사를 깨끗하게 빨아 평소 입던 그 옷을 입고 다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전통 가사를 연구하려해도 자료가 부족하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가사 편수인 비구 스님을 만나 공부했다. 외국 가사와 조계종 외 타 종단 가사도 받아 연구하며 문헌을 연구 대조했다.

“통도사에서 가사 불사 할 때 스님을 뵌 적이 있다”며 “재가자들이 오조가사를 만들 때 가사원 편수를 하셨는데 그 때 재가자들이 가사에 대해 이해하고 불법승 삼보를 수호 하고자는 마음이 크더라”고 말하자 “가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고 말을 이었다.

“전통 가사를 보면 경전 말씀이 적혀 있고 월광보살님과 일광보살님에 얽힌 이야기도 있지요. 의미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 법문입니다. 어른 스님들의 당부와 마음가짐 그리고 몸 가짐, 신장 수호의 역할까지 가사가 하는 역할은 큽니다. 어려운 법문이 아니어도 그 깊은 의미를 전달하면 일반인부터 재가자 까지 그 정성에 깊이 감동하고 불교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죠.”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컴퓨터는 아예 할 줄 몰라요. 하지만 현대인의 고질병인 거북목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깨 통증은 만성이죠(웃음)”

스승에 대한 보은(報恩), 연(輦) 제작 까지

2013년 8월 범어사에서 특별한 고불식이 진행됐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제작된 가마, 금어연(金魚輦) 고불식으로 조선시대 전통방식을 고증해 제작 된 연을 기념한 행사다. 100여 년 전 고종 때 임금을 위한 연이 제작 된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은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가 사용 했지만 사찰에선 불상과 경전 그리고 위패, 가사 등을 이운 할 때 사용된다. 30여명의 문화재급 명장들이 참여했으며 총 3억 원이 투자 된 금어연 제작 총 책임자가 바로 명천 스님이었다.

이후 금어연은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범어사 칠성도 이운식 등 다채롭게 활용되며 범어사 행사를 장엄했다.

“각 사찰에 찾아보면 아마 한두 개 즘 연이 있을 겁니다. 불상과 사리를 이운할 때 종종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B2면에 계속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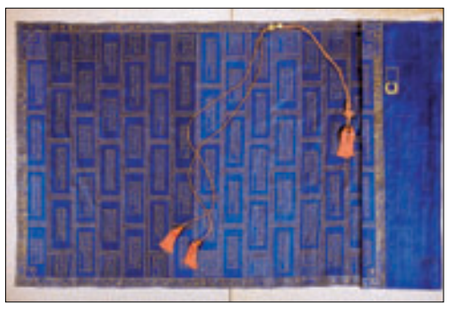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전국 가을 정취 ‘물씬’ 전시회

B6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 햐쿠사이지와 이시도지

불교 전통문화 전승 평생의 業


통도사 가사원에서 가사불사 봉사자들과 함께한 사진. 가사불사는 대부분 여성불자의 몫이었다.


2009년 불교미술대전 대상 작품.


통도사 가사원서 지도하는 명천 스님.

명천 스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북 의성 대곡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지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성수 스님을 시봉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스님은 전통불교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찰음식을 비롯해 공예, 불화, 연 제작 등 다방면에 능력을 발휘했다. 불교미술대전에서 '복전의'로 대상을 받았으며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상하는 등 특별한 능력을 증명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미술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명천 스님' B1면에서 계속

그 때 당시 범어사 주지였던 수불 스님이 제작을 요청하셨고 불교문화 중흥을 위해 흔쾌히 지원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만들어 볼 기회가 없었어요. 마음을 다해 준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통도사에서 통도연을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구상 중에 있어요."

가마 연을 처음 제작한 시기와 계기를 물었다. 스님은 "성수 스님에 대한 '보은(報恩)'이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소소하게 두어 개 만들었지만 시봉했던 성수 스님이 입적 하실 때 상여를 직접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금어연도 만들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성수 스님은 2012년도에 열반 하셨는데 그 전에 스님을 따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은혜도 입고 영향도 많이 받아 스승으로 모셨죠. 무엇으로 은혜를 갚아야 할 까 생각을 했는데 상여는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적 3개월 전부터 도안도 그리고 나무도 사놓고 매듭도 틈틈이 만들었어요. 거의 완성 될 때 즘 입적하셔서 온 힘을 다해 마무리 했죠. 상여와 위패를 모시는 연 까지 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성수 스님에 대한 인연을 묻자 출가 전 부터 맺었던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명천 스님은 197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수 스님을 처음 만났다.

"성수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출가를 하고 싶다고 하자 학교를 졸업하고 와도 늦지 않다 시더군요. 제가 경북 의성이 고향인데 당시 성수 스님이 주지로 계셨던 고은사와 100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 후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통보 하듯 말씀을 드리고 고향에 있던 대곡사 고찰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후 스님은 군대 복무 후 정식 수계 절차를 밟아 통도사를 본사로 출가했다.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교복을 입고 주말과 방학이면 성수 스님을 찾아가 법을 듣곤 했습니다. 1987년 수계를 받은 후 공부를 하다 선방에 들어가기 전 성수 스님이 계신 곳을 찾아 갔어요. 그 때 당시 천막으로 지어진 토굴에서 지내셨는데 물도 새고 환경이 열악하더군요. 이런 곳에서 혼자 어찌 지내실 까 걱정을 하며 '해제 후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돌아서 정확히 세발자국 걸어 나왔는데 큰 스님이 '자네가 함께 있음 도움이 되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그 때부터 스님을 시봉했습니다."

1990년 경 성수 스님을 토굴에서 3년 동안 시봉하고 이후 함양 황대선원으로 자리를 옮겨 2002년 까지 30~40여명을 위한 대중공양도 마련했다.

"성수 스님께서 토굴에 계실 때 시장 안보고 살아보자라고 하셨어요. 그 후 근처에서 나는 모든 것은 음식 재료로 사용할 정도였죠. 한번은 성수 스님께서 염소가 밤나무 잎을 먹는다며 이걸로 음식을 해보라 하셨는데 순간 놀랬지만 다른 야채랑 모아 물김치를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쌉쌀한 맛이 나더군요. 질긴 미나리도 먼지처럼 잘라서 전을 해 먹고 머위 꽃대도, 진달래꽃, 민들레 꽃 모두 음식 재료가 됐습니다"

어른 스님의 한마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음식을 제대로 배워 본적 없는 스님께 큰 공부이자 도전이 됐다. 스님은 이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실시한 전국사찰음식실태조사 때 30여 가지의 사찰 음식을 선보일 정도로 대가가 되어 있었다.

"정성을 다했어요. 그것만이 비결이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수 스님께선 국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공양은 언제나 국수였죠. 아침은 죽 점심은 밥 그리고 저녁은 국수였고 자주 법문을 가시는 큰 스님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 순간들이 모여 이룬 결과라 생각합니다."

불교문화 통한 포교 앞장

美서 '고려전' 전시도 진행
1000여 미국시민 몰려 '화제'
문화 통한 포교 가능성 확인
"승가교육에 불교문화 필요해"

불교문화 위한 전문 승가 과정 필요해

"2002년, 2004년 그리고 2007년 총 3번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서 청암사 설민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12년을 기획하고 6개월간 열리는 전시로 고려전이 주제였죠. 함께 했던 설민 스님은 6m 높이 관음도를 제작하고 점안식을 했어요. 그 때 집계로 천명이 넘는 시민이 왔었습니다. 전 삼국유사 향가를 소개하고 반야심경을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문으로 각각 안내했습니다. 문화의 저력을 체험한 시간이기도 했죠."

명천 스님은 불교문화 양성을 위해 승가 교육에 불교문화 전문 과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스님은 "옛 부터 불교에서는 글을 모르는 일반 중생을 위해 벽화를 그렸다. 문화는 글과 언어를 뛰어 넘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명천 스님은 어릴 때부터 불교가 너무 좋았다고 했다. 면 소재지에 집이 있어 버스를 환승하는 노스님을 뵙는 날이면 졸졸 따라가 골목길로 가로질러 스님을 다른 길목에 서서 기다리곤 했다고 했다.

"어릴 때 노스님께 인사가 하고 싶은데 뒤를 쫓아가 인사하면 너무 따라간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골목길로 뛰어 돌아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척 하고 노스님들께 인사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만큼 정성을 쏟는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부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만큼 쏟았던 정성이 명천 스님을 대가라 부르게 만들었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이룬 결과였다.

양산=하성미 기자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아! 저 발로…”, 남편의 큰 감사함 깨달아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㉑ 하심과 가족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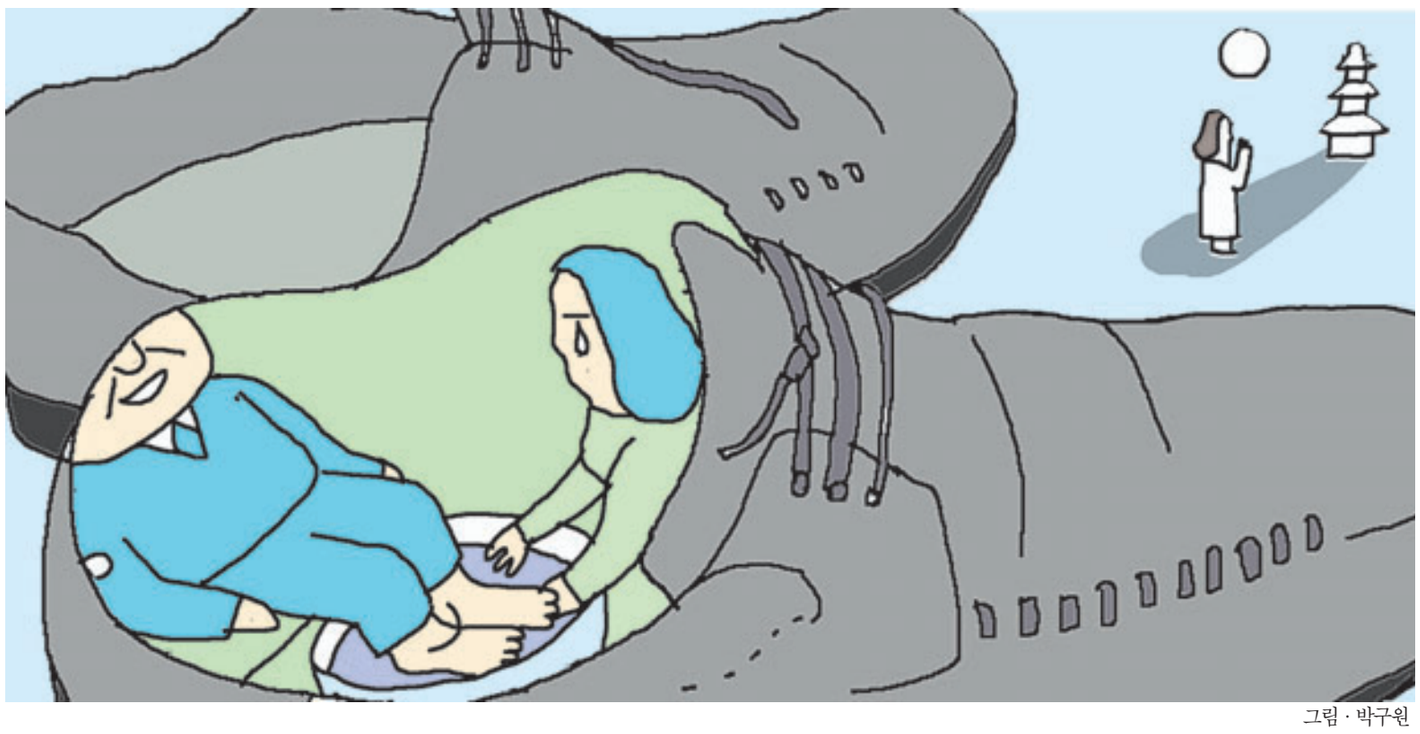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백련암서 찾은 감사의 마음
새벽 남편 발 보고 대성통곡
절수행에 배가된 유대감

백련암의 3000배

해인사 백련암은 절수행의 종가집이다. 삼천배를 하기 위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종가집을 탄생하게 한 주인공은, 생전에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3000배를 하라고 가르쳤던 성철스님이다.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올해로 24년째이지만 그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첫째 주만 빼고 매주 주말마다 전국에서 3000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둘째 주는 수미산팀, 셋째 주는 아비라팀, 넷째 주는 3000배 팀이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많게는 300여 명 에서 100명 미만의 사람들도 참석한다.

백련암에서만 절을 하는 게 아니다. 성철 스님의 상좌 스님들이 계신 곳엔 영락없이 절 수행을 하고 있고,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매달 3000배 정진을 하는 팀들이 수두룩하다.

매년 11월 성철 스님의 열반주기 때는 조를 짜서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쉼 없이 절을 한다. 일주일 동안 백련암은 전국에서 올라와 정진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한 선지식이 남긴 수행이라는 이름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곤 한다.

아마도 성철 스님은 온 마음과 몸을 다한 수행만이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건강한 종교생활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다.

나는 오래 전 큰스님 열반주기를 맞아 매년 실시되는 3000배 철야정진에 큰딸아이와 함께 올라가 정진한 적이 있고, 책 한 권을 탈고하고 올라가 3000배를 한 적이 있다. 매번 좋았고 감동적이었다. 딸과 함께 한 3000배는 딸아이와 도반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홀로 올라가 낯모르는 분들과 섞여 했던 3000배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탈고를 하고 난 감사 회향을 한 3000배여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절수행의 고수들에게 묻다

지난 주 토요일, 백련암에서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3000배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3000배 팀을 부산 자운사(53사단 사령부내 군법당)에서 만났다. 마침 부산에 볼 일이 있어 백련암으로 가는 대신 그곳을 찾은 것이다. 매달 세 번째 주에 자운사에 모여 3천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10여 년 전 인터넷 사이버 도량인 ‘3000천배 카페’를 만들어 매주 첫째 주는 부산 옥천사에서 능엄주 기도를 하고, 셋째 주는 자운사에서, 넷째 주는 백련암에서 3000배를 하고 있는 맹렬 정진팀이다. 이 팀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하루에 1천배는 기본이고, 한 달에 한두 차례 3000배, 일 년에 몇 차례 1만배를 한다.

오후 6시 절에서 정갈하면서도 푸짐했던 저녁을 먹고, 7시 정진이 시작되기 전 이 팀의 도반들을 이끌며 정진하고 있는 원공 거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방 신문사의 제작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중년의 이 분은 13년째 절을 하고 있는 절수행의 베테랑이다.

“절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한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토록 오래 쉬지 않고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포함한 질문이기도 했다.

“예전엔 성격이 엄청 날카로웠어요. 규정에서 어긋난 꼴을 보지 못해 항상 뿔 달린 도깨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할 정도였는데 절을 하고 둥글게 바뀌었죠.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기도가 끝나고 많은 것을 깨달았죠. 가장 먼저, 오빠를 위해서 매일 천배를 했지만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세상일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힘든 삼천배도 처음 한 번의 절부터 시작해 힘든 과정을 거쳐 3000배로 마무리되듯 세상일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격도 많이 바뀌었죠. 조용히 앉아서 하는 바느질 같은 것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엄두도 못냈는데, 지금은 차분히 앉아 끝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지금 그녀는 매일 천배를 하고 매달 한 차례 삼천배를 하며 일 년에 한두 번씩 만배를 하는 절수행자가 되었다.

정진하는 동안 뒤에서 절을 하는 그녀를 지켜보니 가뿐가뿐하게 일어서며 3000배를 거뜬히 해냈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시작되면 ‘아이구 힘들다!’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3000배를 완주하고, 다음 달이면 다시 3000배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수행만이 삶을 완성시키는 공덕이 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남편의 발을 붙들고 통곡하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3천배 정진엔 나를 포함해 15명이 참석했다. 10명이 여성, 5명이 남성이었다. 대략 사십대에서 육십대까지의 연령 분포를 이루었는데, 사오십대가 주를 이루었다. 처음 1000배를 하고 30분 쉰 다음 800배, 700배, 500배를 하는데, 그 중간에 30분씩 쉬면서 정진했다. 108배를 하는 시간은 12분, 그러니까 천배를 하려면 정확히 두 시간 걸리는 것이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절도 있게 절을 했는데, 가장 힘든 시간은 700배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함께 정진하면 80프로는 저절로 하게 돼요!’, 참석자 한 분의 말처럼 나도 첫 시간 힘들지 않게 1000배를 마쳤다. 날렵하고 가볍게, 우아하고 조용히 화두를 든 것처럼 한 배 한 배 절을 하고 나비처럼 가볍게 일어서는 동작이 똑같은 게 인상적이었다. 한 분이 ‘지심귀명례’를 선창하면 나머지 분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호명하는 ‘108참회문’을 보고 절을 하는데, 선창하는 거사님의 목소리와 부처님의 이름을 호명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은 것도 오랜 수행에서 나온 결과처럼 보였다. 깊은 우울증을 매달 한 번씩 하는 3000배를 통해 극복했다는 한 거사님의 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한 달에 한번 만 배를 한다는 혜안성보살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8세, 직장인으로 아들 셋을 둔 엄마다. 남편과 함께 왔다. 눈빛이 또랑또랑하고 맨 앞에서 경쾌한 모습으로 절을 했던 분이다. 1년 정도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108배를 했다는 그녀. 남편이 해외로 6개월 동안 출장을 가 있는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번씩 3천배를 하러 다녔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3천배를 거뜬히 해냈다. 자신도 절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 6개월 후 남편이 돌아오면서 합류했다. 처음 온 식구가 백련암에서 3000배를 하던 날, 바로 뒤에서 어린 아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해서인지 남편은 다리를 파르르 떨면서도 끝까지 해내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도반이 된 이후 2년 동안 매일 1080배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500배를 하고 나머지 500배는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했다. 한 사무실의 직원들 부인이 마침 불자라서 힘들이지 않고 양해를 얻어 사무실에 방석을 가져다 놓고 절을 했다.

“정말 3년 동안 미친 듯이 절을 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숨어서 했을 만큼 열정적으로 했죠.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만 배에 도전해 절을 할 때를 잊을 수 없어요. 힘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웠고 환희심에 눈물을 많이 흘렸죠.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군요. 부모님이 저를 건강하게 낳아 키워주신 것, 남편이 절을 하러 가는 나를 차로 데려다 준 것,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만 번 몸을 숙이고 보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1000배씩을 하던 어느 날 새벽, 절을 끝내고 침대 밖으로 삐죽하게 나온 남편의 발 한 짝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 저 발로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 가족들을 먹여 살렸구나. 맞벌이를 하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너무 큰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남편의 발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태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보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내게 되었다. 자식을 키우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배웠다. 완벽주의자인 자신 때문에 곁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깊은 참회가 되었다. 모 아니면 도일만큼 곧은 성격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남편도 절을 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며느리가 만 배를 하러간다고 하면 도반들과 함께 먹을 죽을 쑤어준다고 한다. 4학년 때부터 엄마와 함께 절을 해온 막내아들은 지금 고1인데,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하고 어른처럼 느껴지는 도반이 되었다.

처음 절을 시작할 때 가족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염원이 아이들과 남편은 물론 친정식구들까지 절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뤄졌다. 결혼을 앞둔 조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면서 예비신부와 함께 3000배를 권했더니, 조카가 절을 하고 나서 이모가 왜 둘이 함께 3000배를 권했는지 알게 되면서 고마워했다. 절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 방석을 선물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편과 언니네 부부, 조카들과 함께 했던 스무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며 설악산 봉정암에도 올랐다. 세 번을 계획했는데 두 번을 끝냈다고 한다. 절을 하면서 깨달은 소중한 가치를 이웃과 함께 하고 싶은 사명감이 생기는 것도 수행이 주는 보너스인 것이다.

3000배를 끝내고 서로 마주보고 3배를

정확히 다음 날 새벽 2시 40분에 삼천배가 끝났다.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나서 다시 “성철종사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하는 소리에 맞추어 3배를 올리던 모습에 깊이 마음에 남았다. 그렇게 한 사람의 도인이 영원한 생명으로, 스승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감되었다. 다시 20여 분 동안 간단한 예식을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면 삼배를 올리고 나서 완전히 끝난 후 혜안성보살님이 남편에게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활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이 쑥스러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리던 것이 백 마디의 어떤 화려한 말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절을 끝내고 먹은 떡 국 한 그릇은 어느 고급 한정식당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 떡국을 끓여낸 분은 3000배를 매일 12년 동안 하고, 현재 1000배를 하고 있다는 59세의 종현월보살님. 도반들이 잘 정진할 수 있도록 쉴 때마다 간식을 차려내고 뜨끈한 떡국 한 그릇으로 피로를 날려 보내게 한 보살님의 보살행이 밤새 3000배를 한 분들만큼이나 값져보였다. 떡국을 먹으며 ‘지심귀명례’를 고른 음으로 선창했던 젊은 거사에게 물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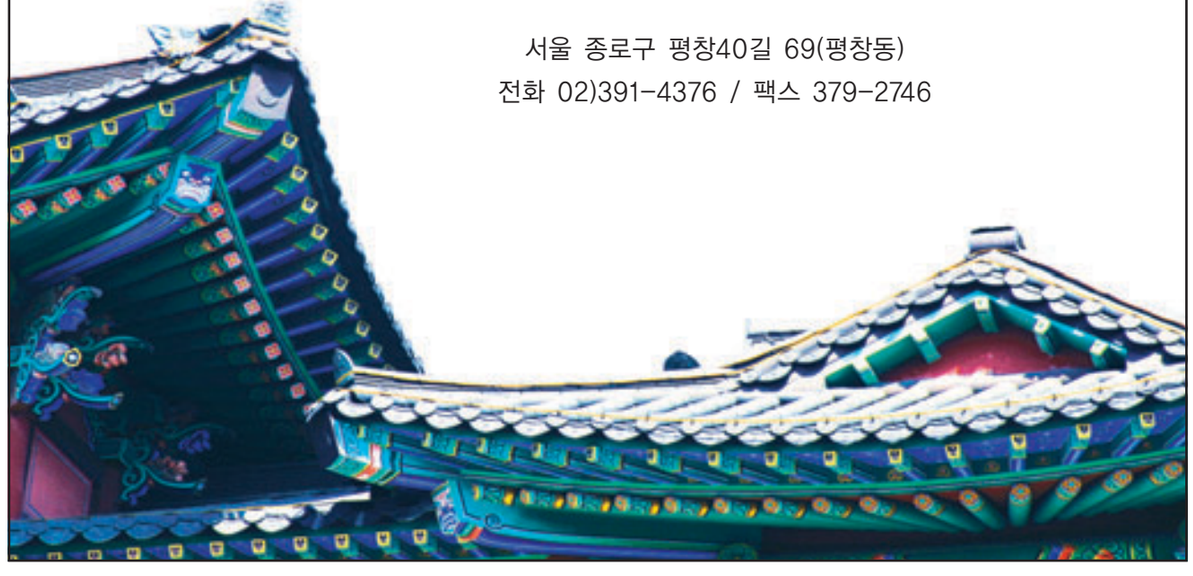
“글쎄요, 저희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하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문에 현답, 현재를 사는 수행자다운 대답이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 청
종도 및 대각불교교양대학 동문, 임직원 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미암길 128 전화 041)832-1188 / 팩스 832-1187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총무원장 만 혁
종도 일동
서울 종로구 평창40길 69(평창동)
전화 02)391-4376 / 팩스 379-2746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연꽃 향초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慶祝 국내 최초 사단법인 대한명리학협회 設立

설립 취지 : 명리학의 본질을 벗어나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왜곡된 명리학을

1 명리학의 바른 이론을 연구 개발하여 명리학에 뜻이 있는 분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돈벌이 수단으로 왜곡된 명리학을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운명을 올바르게 추리하도록 한다.
3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각 지회(지사)별 월1회 이상 명리학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4 본회 및 각 지사별 명리학 수강생 모집 강의.

◒ 전국 지회(지사) 및 수강생 대 모집 ◒

지회(지사) 모집
전국 각 시·도·구 별
명리학 교육 실시 /명리학 자격시험 실시
명리학 자격증 발행
본 협회 현판 부여

협회 정회원 모집
전국 각 지회별 모집
월1회 무료교육 실시 / 본 협회 회원증 발급
자격증 발급 (합격자)
명리학 강사 특별교육

명리학 수강생 모집
기초과정, 고급과정, 실전과정
사주, 명리학, 작명학, 타로 / 관상(수상)학, 생활풍수학
운명상담, 직장, 사업, 인간관계
학과(진로), 직업, 궁합, 택일

문의전화 : 051)802-3733. 010-3711-5072 사단법인 대한명리학협회 (본회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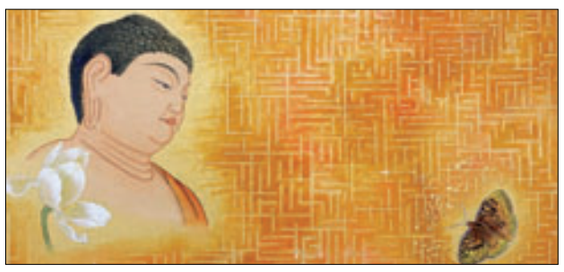
전국 가을 정취 물씬 전시회 소개

'가을엔 미술관을 가겠어요'

로터스갤러리, 민중미술 작가 '참 맑은 꽃' 展
필갤러리, 박병일 작가 '인왕산에서 노닐다' 展
갤러리다온, 불교미술 작가 최가영 개인전 '如法'
코모다호텔, 수안 스님 선서화전 '행복주머니'



박병일 작가는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주거지이자 서인(西人)학문과 예술의 발상지였던 인왕산에 주목한다. 간결하고도 부드러운 선의 미학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묵화 작품이다. '인왕산에서 노닐다' 150x345cm, 화선지에 수묵.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 69cm x 39cm 비단에 천연재료 2014



이준석 작가는 만방에 핀 '들꽃'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떠올린다. 이준석 作 '푸르른 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가을 캐롤'이라고도 불리는 노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작곡 김민기)의 한 구절이다.

열매와 이삭, 단풍잎도 가장 성숙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은 왜 싱숭생숭한지, 추억의 노래를 꺼내 듣고 그리운 이에게 글 몇 자 적어 보내고 싶은 '가을'이다.

여기, 가을하면 떠오르는 불문율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시회'다. 평소 잘 찾지 않던 전시회도 찬바람 불 때면 꼭 생각이 난다. 가을이 끝나기 전, 전시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을 정취 물씬 나는 전시회 4선을 소개한다.

그림 속 소국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가을하면 '꽃' 싱그러운 봄꽃과는 다른, 가을꽃은 따뜻하고도 완연한 매력이 있다. 급히 추워진 날씨 탓에 가을꽃을 미처 만나지 못했다면 광주 로터스갤러리로 가자. 그림 속 꽃들이 풍겨내는 가을꽃 향기가 저 멀리 걸어오는 겨울마저 잠시 멈추게 할 테니.

민중미술 1세대 작가 이준석의 '참 맑은 꽃' 전시가 11월 1~29일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중석 작가는 광주 지역에서 민중미술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학 시절 교생실습 기간에 겪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영향이 컸다. 작가는 그 후 30여 년 동안 안온한 삶을 뒤로하고, 거리와 광장에 자신의 신념을 담은 작품들을 걸어두고 있다.

이 때문에 '꽃'도 작가에게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작가는 만방에 핀 '들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 작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 보단 길섶에서 흔히 보고 지나치는 들꽃 무리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푸르른 날'(2014) '늘 저만큼 거리에서'(2017) 등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 사대부처럼 인왕산에 취해볼까

필갤러리는 2017 신진작가 공모 첫 번째 전시로 박병일 작가의 '인왕산에서 노닐다' 展을 10월 30일~11월 11일 연다.

박병일 작가는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주거지이자 서인(西人)학문과 예술의 발상지였던 인왕산에 주목, 일대의 청풍계 · 청휘각 · 자하동 · 필운대 · 창의문 · 수성동을 비롯해 인왕산 둘레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왕산의 풍성을 재구성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부각시키는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박병일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로 같은 '인생길'서 부처를 좇다

한 치 앞 모르는 '인생길'을 비유하는 미로의 형상에 생의 기쁨과 고난을 담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주제로 최가영 작가의 불교미술 개인전이 열린다.

불교미술 작가 최가영은 11월 7~17일 서울 강남 갤러리다온에서 '여법(如法)전'을 연다. 최 작가는 천연재료를 사용해 전통 불교회화 기법을 따라가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꾀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로-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 '미로-걷다3' 등 작품들이 공개된다. (02)555-9429

〈화엄경〉 가르침이 선서화로 태어나다

수안 스님은 선서화집 〈행복주머니〉 출판을 기념하며 출판기념법회 및 선서화전을 11월 1~5일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개최한다.

선서화전은 책 〈행복주머니〉에 담긴 선화를 주제로 전시한다. 〈행복주머니〉는 경전〈화엄경〉의 가르침을 선의 안목으로 풀어낸 선서화집이다. 이 책은 통도사 사보 '등불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식지 인 '행복한 빈손'에 실렸던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작품은 100여점이며 수록 작품 외 추가로 그린 새로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시 수익금은 통도사 요양원 자비원에 회향한다.

수안 스님은 석정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1979년 '이리역 폭발사고 이재민 돕기 선묵전'으로 대중에 알려졌으며, 현재 한국불교 선화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영축산 문수원에 주석 중이다. (051)244-0263 박아름 · 하성미 기자

세계적 힐링멘토가 안방으로 찾아온다!



BTN불교TV는 10월 20~25일 서울 및 제주에서 열린 '슈퍼 소울 릴레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11월부터 3개월간 방영한다.

BTN, '슈퍼 소울 릴레이' 등 신규 프로그램 편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시청자와 청취자 중심의 가을 개편을 꾀한다. '힐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는 시청자 수요를 반영해 힐링멘토 강연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라디오도 청취자 편의를 반영해 편성 시간을 대폭 변경한 것.

먼저 BTN은 10월 20~25일 서울 및 제주에서 열린 '슈퍼 소울 릴레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11월부터 3개월간 방영한다. '슈퍼 소울 릴레이'는 오프라 윈프리의 '슈퍼 소울 선데이, 더 시크릿 쇼'를 통해 세계적 힐링멘토로 부상한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를 비롯해 혜민 스님, 야구선수 박찬호, 세바시 김창옥 교수가 참여한 행사다. BTN은 행사 전반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함께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의 단독 인터뷰를 담았다. 자세한 방송 시간은 추후 공지.

아울러 BTN 불교라디오 '울림'은 론칭 1주년을 맞아 편성 시간을 조정한다.

인기 프로그램 '원영 스님의 해피타임'은 기존 5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편성된다. 본방송은 월~금 오전 10시이며, 재방송은 오후 6시와 익일 새벽 3시다.

또한 10분간 방송되던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도 청취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편성, 매일 1시간 방송된다. 본방송은 매일 오전 6시, 재방송은 월~금 오후 3시와 자정이다. 이번 편성 조정은 11월 6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림' 앱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BTN 불교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울림' 앱을 내려받거나, BTN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취할 수 있다. (02)3270-3464~7 박아름 기자

천은사 괘불탱, 통도사성보博서 위용 뽐내

괘불탱 특별전 내년 4월 22일까지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화가 통도사 개산대재를 겸해 일반에 공개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괘불탱 특별전으로 '천은사 괘불탱화'를 10월 28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 헌괘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6년부터 매년 개산대재 기념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구례 천은사는 통일신라 9세기에 '감로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이후 18세기부터 지금의 '천은사'로 개명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천은사에는 주불전인 극락전을 비롯해 팔상전 · 웅진전 · 삼성전 등이 남아있으며, 〈금동불감〉(고려, 보물 제1546호) 〈아미타설법도〉(조선 1776년, 보물 제924호) 등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이번에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괘불탱화는 1673년 제작, 세로 865cm 가로 540cm의 규모를 자랑한다. 삼베 바탕에 붉은색, 녹청색을 주조색으로 그렸다. 화면에는 주존이 일체의 권속 없이 단독으로 서 있으며, 여래는 거신형 광배를 갖추고 양 발을 벌린 채 붉은색 연꽃을 밟고 있는 당당하고도 위엄 있는 자태를 뽐낸다.

이 탱화는 별도의 화기란을 마련하지 않고 화면 테두리 밖 하단 중앙에 제작 시기, 봉안처, 발원 내용, 시주자 명단이 먹으로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화기를 통해 천은사에서 1673년(강희 12년) 대영산교주 존상 1점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실의 성소를 기원하고 국태민안, 전란 소멸 등을 발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아름 기자



천은사 괘불탱화, 1673년, 마본채색, 865×540cm, 보물 제1340호

현밀과 삼승의 모든 지혜를
포괄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가르침!

문수진실명경
역해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떠나 모든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티베트 경론 번역에 힘쓰고 있는 중암 스님이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들을 참조하여 방대한 설명과 각주를 달았다.

중암 선혜 역주/신국판 양장/752쪽/값 35,000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고, 학산 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였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찰 곳곳서 한반도 渡來人 숨결 느끼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⑳ 햐쿠사이지와 이시도지



햐쿠사이지 인왕문의 모습. 문에 걸려 있는 큰 짚신을 만지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시도지 삼층석탑. 부여 장하리 석탑과 유사한 모습이다.

나라와 교토는 명찰이 많아서 소개하고 싶어도 아직 못한, 가 볼만한 사찰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 사찰들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한국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 그곳이 바로 시가현이다.

최근 일본을 찾아오는 외국인 방문객이 연간 2,000만 명을 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한국인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내가 전차를 타면 한국어가 자주 들릴 정도다. 그런데 간사이 지방에서 외국인한테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곳은 여전히 오사카와 교토이지만, 시가현을 찾아가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시가현은 대중교통이 그리 발달된 편이 아니라서 찾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그래도 교토에서 멀지 않고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가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교토부 동쪽에 위치한 시가현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琵琶湖)가 있고 자연 환경도 아주 뛰어나다. 환경이 좋고 교토나 오사카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여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가현의 인구는 오사카의 약 1/6에 불과하고 면적도 작은 편이라 지명도는 높지 않다. 실제로 방문하면 차창 풍경이 산과 들과 논밭, 그리고 주택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 시골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뜻밖에도 옛날에 '오미(近江)'라고 불리던 시가현은 '대국(大國)'이었다. 현재의 현(縣)에 상당하는 일본 각지에 있었던 '국'은 '대상중하(大上中下)'라는 4등급으로 랭크가 매겨졌는데 오미는 가장 큰 대국으로 매겨져 있었다. 동일본과 서일본 중간에 위치하는 시가현은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다. 열차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중요한 교통수단이 수운(水運)이었다. 시가현 북쪽은 후쿠이현(福井縣)을 경유해서 동해로, 시가현 남서쪽은 강을 경유해서 오사카, 그리고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로 이어져 있다. 동해 쪽에서 배로 온 사람이나 물품은 비와호나 강을 통해서 교토나 오사카 쪽으로 날라졌다.

약 5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7세기 후반에는 시가현으로 천도해 일시적으로 수도가 되었다. 천도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성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도래인들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도 이전에 이미 도래인이 시가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백제가 패망한 후 그 유민들을 일본에 정착시켰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665년에 백제인 400여 명을, 669년에는 백제인 700여 명을 시가현 동쪽인 호동(湖東)에 정착시켰다고 한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인지 역시 시가현에는 도래인과 관련된 유적이 많다. 그 가운데 햐쿠사이지와 이시도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반도 도래 문화 숨쉬는 시가현

百 寺·石塔寺, 한반도와 연관돼

고구려·백제 승려 주석한 百 寺

石塔寺 석탑, 장하리 석탑과 유사

햐쿠사이지(百 寺)

일본어로 '구다라'라고 발음하는 '백제(百濟)', 앞에서 말했듯이 백제와 일본이 깊은 관계가 있었다. 지금도 구다라가 주소, 초등학교, 공원 등 고유 명사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인연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구다라지(百濟寺)라고 불리는 사찰이 몇 개 있었다. 폐사가 된 곳, 터만 남아 있는 곳도 있는 가운데 시가현의 햐쿠사이지(이곳만 구다라지가 아니라 백제의 한자음을 그대로 따르고 햐쿠사이지라고 발음함)는 단풍 명소로도 알려져 있어 가을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햐쿠사이지는 7세기 초 무렵에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의 발원으로 백제인에 위해 백제 용운사(龍雲寺)를 모델로 창건된 사찰이다. 고구려 승려 혜자(惠慈), 백제 승려 혜총(惠聰), 도흠(道欽), 관륵(觀勒) 등이 이곳에 머물면서 사찰 건립에 힘을 썼다. 덕분에 사찰이 크게 융성했다고 한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 비와호 서남쪽에 있는 히에이잔(比叡山)에 천태종 사찰 엔랴쿠지(延曆寺)가 개창된 후 햐쿠사이지도 천태종 사찰이 되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헤이안 말기에서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대사찰이었다. 화재나 전란으로 사찰 건물이 많이 소실되었으나 당시는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햐쿠사이지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16세기 후반이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에 걸쳐 일본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기로 전국시대(戰國時代)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었다. 천하통일을 노린 무장이자 다이묘(大名)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는 1571년에 엔랴쿠지를 태워버렸다. 엔랴쿠지가 노부나가에 저항한 다이묘와 친교가 깊어서 이 싸움에 휘말린 것이다.

햐쿠사이지도 마찬가지였다. 노부나가에 저항한 어떤 다이묘들이 돌담을 쌓아 햐쿠사이지 등을 성새화(城塞化)했다. 노부나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햐쿠사이지는 고민한 끝에 오랜 관계를 중요시해 저항 세력에게 병량(兵糧)을 보내고, 그들의 가족들을 사찰 경내에서 보호했다. 격노한 노부나가는 이것을 모반이라고 간주해 햐쿠사이지를 태워버렸다. 간신히 주요한 불상 몇 구, 중요한 경전 등이 살아남았다. 1573년의 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1532~1597)가 지상의 낙원인 햐쿠사이지가 불태워져 없어진 것을 아쉬워하는 기록을 남겼다.

에도 시대에 들어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 17세기에는 본당(本堂), 인왕문(仁王門), 산문(山門) 등이 건립되었다. 그것이 현재 있는 건축물이다. 옛날 같은 수많은 건물이 많이 없어졌지만 햐쿠사이지 넓은 경내를 답사하면 위용을 자랑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시도지(石塔寺)

이 연재에서 소개하는 사찰이 거의 다 내가 적어도 한 번은 가 본적이 있는 사찰이다. 그러나 이시도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도 꼭 소개하겠다고 결심한 사찰이다.

내가 이시도지를 알게 된 계기는 작년 말에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후지모토 다쿠미(藤本巧) 사진전 '일본 속의 한국 도래 문화'이었다. 이시도지 삼층탑과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을 대비해 전시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유적이 많지만 이렇게 한 눈에 그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전(寺傳)에 의하면 이시도지 연기는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가 입멸한 후, 인도의 아쇼카왕이 불법 흥륭을 기원해 8만 4천 개나 되는 탑을 만들고, 탑에다가 사리를 넣고 세계 여러 곳에 뿌렸다. 그 중 탑 2개가 일본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현재 이시도지가 있는 곳에 떨어져 땅에 묻혔다. 헤이안 시대에 유학승이 송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자 일본에 있는 승려에게 편지를 보내 이 일을 알렸다. 편지를 받은 승려가 상소를 올리자 천황이 칙사를 보내 발굴시켰더니 큰 석탑이 나왔다. 원래 여기는 쇼토쿠타이시가 건립한 사찰의 하나였지만, 큰 탑이 나왔기 때문에 가람을 다시 건립해 이시도지라는 이름을 지었다.

사전 내용이 이렇게 전설적인 것이 아마 사찰 연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석탑은 여기에 정착한 백제계 도래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추측된다.

15세기에 오닌(應仁)의 난(亂), 16세기에 오다 노부나가의 병화로 가람, 문헌 등이 거의 다 소실되었다. 하지만 석탑이 당당한 모습으로 솟아 있는 것을 보면 도래인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 감동을 받는다.

사찰 입구에서 긴 계단을 올라가면 높이 7.5m의 큰 석탑을 중심으로 작은 석탑이 무수히 지어 널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이 모습에 압도당한다. 이시도지를 방문하면 색다른 일본 사찰 답사가 될 것이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햐쿠사이지 이시도지 답사 안내

햐쿠사이지, 이시도지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편하다. 주변엔 두 사찰 외에도 볼만한 사찰이 많아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효율적으로 답사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전차, 버스로 햐쿠사이지에 갈 때는 방법이 2개 있다. JR오미하치만(近江八幡)역에서 내리고 오미 철도(近江鐵道)를 타고 요카이치(八日市)역까지 간다. 그리고 요카이치역에서 버스 아이토선(愛東線)을 타고 햐쿠사이지 혼보마에(百 寺本坊前)에서 내린다(소요시간 약 30분). 이 버스는 사찰 바로 앞까지 가는 것이 장점이다. 단 하루에 4번 밖에 없어 주의해야 한다. JR노토가와(能登川)역에서 내리고 버스 가쿠노선(角能線)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이 버스는 1시간에 1번 정도 있어서 더 편하다(소요시간 약 35분). 다만 버스 정류장 햐쿠사이지 혼마치(百 寺本町)에서 사찰 입구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햐쿠사이지, 햐쿠사이지 북쪽에 있는 곤고린지(金剛輪寺), 사이묘지(西明寺) 세 사찰은 호동에 있는 고찰로 '고토산잔'(湖東三山)이라고 불린다. 곤고린지는 도래인의 후손인 명승 교키(行基) 스님에 의해 개산된 사찰이다. 모두 다 단풍 명소로 가을엔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 자동차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풍 투어 버스도 있다. 매년 11월 하순엔 셔틀 버스로 고토산잔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이시도지에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오미 철도 요카이치역에서 갈아타고 사쿠라가와(櫻川)역에서 내리고 사찰까지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 작은 무인역인 사쿠라가와 역에서 사찰까지는 논이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40분 정도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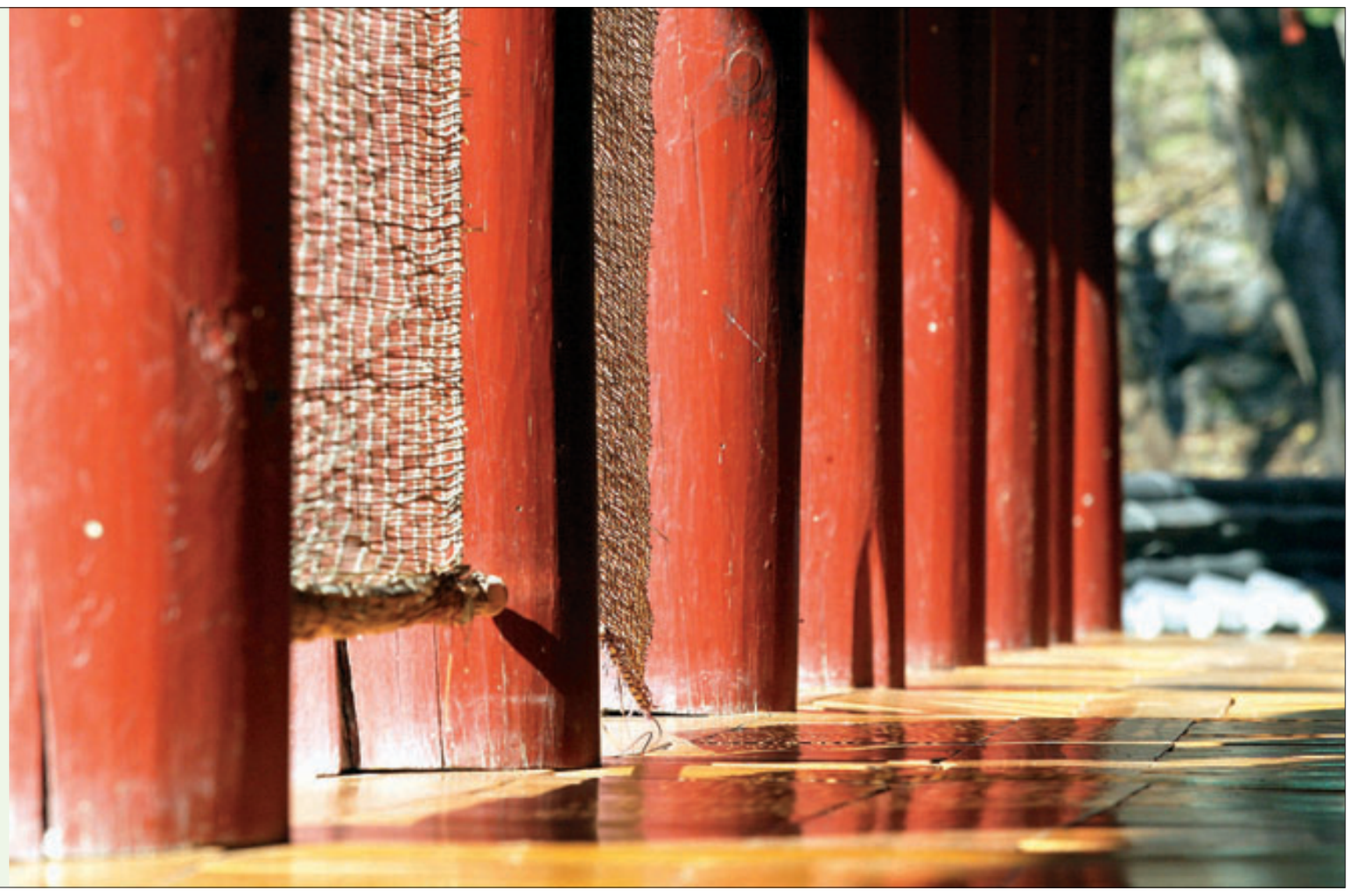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절에 가고 싶은 날

도로는 많아도 길은 없고, 밤새 화려한 불빛들이 넘치지만 등불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나의 하늘엔 오늘도 죄가 많고, 두 눈을 감아 세상을 덮어도 나의 죄는 사라지지 않나니. 오늘은 문득 가을햇살에 앉아 들었던 풍경(風磬)소리가 먼 기억으로부터 날아든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㉑ 醫王 지바카

의술의 왕이 되기 위해선…

의사의 왕 지바카는, 마갈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기였을 때 길가에 버려진 것을 빔비사라왕의 아들 무외(無畏)왕자가 주워다 키웠다 합니다.

아들이 없던 왕자는 주워 온 아기 이름을 지바카라 짓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여운 아기를 지바카 동자라 불렀습니다. 지바카는 이제 동자가 아닌 소년이 되었습니다. 무외왕자는 소년 지바카를 탁실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의술을 공부해 오도록 부탁한 거지요.

당시, 탁실라는 문화와 학문이 앞선 나라로 마갈타 나라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탁실라에 도착한 지바카 소년은 의술로 널리 알려진 빈가라(賓迦羅)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갈타에서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의술을 배우고자합니다."

"좋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라."

빈가라 스승은 먼 나라에서 찾아온 제자를 반갑게 맞아서 열심히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지바카는 열심히 의술을 배웠습니다.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바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의술 공부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빈가라 스승이 미소를 짓더니, 대바구니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산과 들을 조사해서 약이 아닌 풀을 여기에 담아 오도록 하라."

지바카가 스승님 주는 대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여러 날 산과 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보니 약으로 쓰이지 않는 풀과 나무는 없었습니다. 지바카는 스승에게 빈 대바구니를 돌려드리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 날을 조사했으나 약에 쓰이지 않는 초목은 없었습니다."

지바카의 말을 들은 스승은, 소리 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쯤 알면 지바카 자네는 의술 공부가 끝났네. 수미산 남쪽 염부제에서 의술로는 내가 제일이었는데 제자 지바카가 내 뒤를 잇게 되겠군. 장차 의사의 왕이라 불리 될 걸세. 고국으로 돌아가게."

지바카는 스승께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빈가라 스승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의사다. 의사야." 지바카는 기쁨을 외치며 먼 길을 걸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가타(婆伽陀)라는 성에 들러서 그곳 장자의 부인이 10여년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부인은 지바카의 치료 1호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진 사람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니 아주 보람차고 기뻤습니다.

그 길로 지바카는 마갈타의 서울 왕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길러준 아버지 무외왕자를 찾아가 뵙고, 빔비사라라왕을 치료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빔비사라왕은 종기가 나서 낫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바카는 종기를 칼로 자르고



그림 · 강병호

물에 씻은 다음, 약을 발라 금방 낫게 했습니다.

빔비사라왕이 지바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

지바카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치료가 끝났습니다."

"어째서 아프던 자국이 없느냐?"

"벌써 다 아물었습니다."

이것이 지바카의 두 번째 치료였습니다. 왕을 치료한 지바카는 이제 이름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빔비사라왕은 지바카에게 부처님의 교단과 왕궁을 전담하는 의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지바카는 머리가 쑤시고 있다는 왕사성 어느 장자에게 마취되는 술을 먹인 다음 머리뼈를 열고, 그 속에 가득 있는 벌레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치료였습니다. 교상미 나라 장자의 아들의 뒤틀린 창자를 고쳐 준 것은 네 번째 치료였습니다.

어느 때 악왕으로 알려진 위선(尉禪) 나라 바라수제(婆羅殊提)왕으로부터 12년 앓고 있는 두통을 고쳐달리는 부탁이 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 병에는 우유를 삭여서 만든 타락으로 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왕은 우유를 몹시 싫어하는 식성이었습니다.

"바라수제왕은 독충 전갈의 자손이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니 조심해라."

빔비사라왕이 일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름난 의사 지바카는 우선 잘 달리는 말 한 필을 구해서 타고 가서, 위선나라 바라수제왕을 만났습니다.

"이 지바카가 고쳐드리지요." 지바카의 자신 있는 말에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유를 못 먹소. 타락으로 만든 음식을 권하는 많은 사람에게 벌을 주었소."

"예, 그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바카는 타락으로 만들었지만 물맛이 나는 약을 왕의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 잠에서 깨시면 물을 찾으실 겁니다. 병에 담긴 이 물을 드리세요."

약을 전한 지바카는 빠른 말을 타고 왕사성으로 달아났습니다. 바라수제왕이 잠에서 깨어 물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병을 주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던 왕이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타락 냄새가 나네. 그 젊은 의사가 한 짓이로군. 불러들여라!"

그러나 지바카는 벌써, 위선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12년을 앓던 머리가 꽹하게 맑아졌어. 아이 좋아라!"

두통이 사라지자 바라수제왕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의사의 왕 지바카가 그 이름을 얻기까지에는 이처럼 곡절이 많았대요.

〈사분률 39권〉

대 원 불 교
(청동불상 조성업체)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템플스테이는

1,700여년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해보는 전통문화체험입니다.
나를 위한 멋진 여행을 찾고 있다면,
가을엔 **YOLO(You Only Live Once)** 오세요
전국 120곳 사찰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
템플스테이 홍보관 02-2031-2000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